



코스피	2078.69 (-10.93)	코스닥	682.37 (-9.18)
금리 (연이자율)	1.96 (-0.02)	환율 (원/달러)	1123.30 (-0.50) (7일)



[혁신도시]  
나주-한국전력  
동반성장의 등불  
02

# “미래세대 위한 보편복지” vs “대권 노린 선심행정”

##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 친환경 무상급식

“2011년 서울시장에 당선되고 나서 처음으로 결제한 서류가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안이었다. 현재 약 70만명의 청소년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건강한 미래세대를 키우는 일이지 값을 매길 수 없는 투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0월 29일 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교·사립초 친환경 무상급식 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오는 2021년부터 서울 시내 모든 초·중·고교에서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된다. 이에 일부 시민들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무상급식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필요하지 않은 아이들까지 지원하는 건 ‘혈세 낭비’라며 반대한다. 반면 전문가들은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이 자 국가의 의무라며 모든 학생이 보편적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무상급식 진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 ◆보편 복지는 낭비가 아니다

서울시가 지난 8월 발간한 ‘친환경 무상급식 성과 백서’에 따르면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지난 4년간 4조원이 넘는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2011~2014년 무상급식에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2021년까지 국·공·사립 학교유형이나 초·중·고교 등 학교급과 상관없이 무상급식을 시행한다는 계획을 29일 발표했다. 계획대로면 2011년 공립초부터 시작된 서울 학교 무상급식이 10년 만에 완성되게 된다. /연합뉴스

헌법 보장 ‘국가의 의무’  
모든 학생 평등지원 돼야

전면 지원은 ‘혈세 낭비’  
복지사각지대에 지원을

2조2576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결과 4조1913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있었다. 이는 10억원의 예산을 급식에 투자하면 직·간접적으로 18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뜻한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일자리 창출 효과도 컸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통해 연평균 25만5000명, 지난 4년간 102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친환경 유통센터 설립과 식료품제조업 생산 증가로 인한 고용

확대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졌다.

양재열 전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무상급식은 세금으로 하는 공동구매라고 생각하면 된다. 보편 복지로 접근할 경우 규모 경제의 효율성이 생긴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급식 품질 향상 옵션으로 ‘급식 펀드’ 제도를 도입해 노블레스 오블리주(직위에 따른 도덕적 의무) 차원에서 접근하면 보편 복지에 대한 사람들의 거부감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권일남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교수는 “무상급식 신청 과정에서 아이들이 겪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차별 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보편적 복지 차

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돈 없는 사람은 주고, 있는 사람은 주지 말자 이런 차별의 논리를 떠나 국가나 교육 기관이 아이들을 책임진다는 관점에서 무상급식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지원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상위 10%를 선별하는 행정 비용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국민의당 정책위원장으로 이동수당 정책 조율에 참여한 이영호 무소속 의원은 선별적 복지 차원에서 아동수당 지급 대상 중 상위 10% 가구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었다며 정책 수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금수저를 배제하기 위해 아동수당은 선별적 복지로서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결국 관철시킨 바 있다”며 “그러나 정책 추진과정에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벌어지는 부작용을 발견했다”고 고백했다.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 결과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소득 상위 10%를 걸러내기 위한 행정비용이 1600억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는 매년 8만 가구가 아동수당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이 의원은 “이는 아동수당 대상 가구 중 소득 상위 10%인 가구가 9만 가구인 점을 고려하면 행정비 효율”이라며 “이러한 현실을 감안



타지마할 방문한 김정숙 여사

모디 인도 총리의 공식 초청으로 인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7일 오전(현지시간) 인도 우타르프라데시 주 아그라의 타지마할을 방문,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했을 때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 ◆무상급식은 탁상행정

서울 강남에 사는 시민 박모(54)씨는 “부잣집 애들한테 공짜

밥을 왜 주는 거냐. 사정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건 이해한다. 무상급식 전면 도입은 세금만 축내는 일이다”고 말했다.

(3면에 계속)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최저임금 인상+카드수수료 인하 땐 ‘고용참사’ ‘BMW 화재’ 원인 여전히 논란

## 파이터치 연구원 보고서 “내년 인상을 재검토하고 수수료 현행유지가 맞아”

내년 최저임금을 10.9% 올리고 신용카드 수수료를 7.46% 내리면 약 96만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앞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10.9%)을 재검토하고, 소상공인 등이 주장하고 있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는 ‘현행 유지’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다.

파이터치연구원은 7일 펴낸 ‘최저임금 인상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파이터치연구원 라정주 원장은 “내년 최저임금을 예정대로 시간당 7530원에서 8350원으로 올리면 일자리 자동화가 조래돼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가 약 47만명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연구원측이 제시한 근거는 이렇다.

최저임금을 10.9% 올리면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단순노무 일



자리 47만1000개와 비단순노무 일자리 4만2000개가 줄어든다. 이로 인해 일반재 생산량은 1.18% 감소하고, 일반재 가격은 1.76% 오른다. 결국 총매출은 28조7000억원 어치 늘어난다.

라 원장은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한 소득주도성장의 논리는 소득을 올려 소비를 늘리고, 생산이 증가해 결국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거시경제모형을 통해 연구원이 자체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을 올리면 기업이 최저임금 적용대상인 단순노무 일자를 줄이는 동시에 공정을 자동화

하고, 이 여파로 비단순노무 일자리까지 감소하는 역효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의도대로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증가와 소비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 부담 때문에 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이 관련 일자리를 줄이는 등 노동시장에 먼저 충격을 준다는 것이다.

다만 최저임금이 10.9% 상승하면 실질생산량은 줄어들어도 가격이 상승해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또 최저임금이 오르는 동시에 신용카드 수수료가 7.46% 내렸을 때를 복합적으로 가정해 그에 따른 영향도 함께 분석했다.

현재 신용카드 이자비용은 소비자들 2.8%, 가맹점들이 97.2%를 각각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신용카드사들이 가맹점의 부담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경우 신용카드 평균 연회비는 8775원에서 31만6620원으로 급등한다. 대신 신용카드 수수료는 7.46% 낮아진다.

라 원장은 “결과적으로 말하면 카드 수수료가 낮아지는 것보다 소비자들 신용카드를 덜 사용하게 됨으로써 매출이 더 빠르게 감소하게 된다”고 말했다.

분석 결과 이로 인한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당초보다 11조8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저임금을 내년 10.9% 올리고 신용카드 수수료가 7.46%로 낮아질 경우 이로 인해 기업들의 전체 매출액은 무려 66조4000억원이나 감소하고, 총 96만명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줄어드는 일자리는 비단순 노무자가 44만명, 단순 노무자가 52만명이다.

라 원장은 “내년 최저임금을 10.9% 올리기로 결정한 것은 심도있게 재검토해야 하며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할 경우 (비용이 전가될) 소비자들은 카드 사용을 꺼려 오�히려 소상공인 매출이 줄어드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현행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

## 민관조사단 중간 조사 결과 BMW 측 예전 결과와 같아

BMW 차량의 화재 원인을 둘러싸고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BMW 차량화재 원인을 조사중인 민관합동조사단이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또다른 화재원인으로 ‘EGR 밸브’ 문제를 지목했지만 이는 BMW가 애초에 문제 지적했던 부분과 동일한 문제라는 반론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7일 민간합동조사단의 BMW 화재 관련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 실험 결과 BMW 차량 화재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단은 ▲EGR(배기가스 재순환장치) 쿨러에 누수가 발생한 상태 ▲EGR 밸브가 일부 열림으로 고착된 상태에서 고속주행 ▲배출가스 후처리시스템(DPF/LNT) 작동 등의 조건에서 BMW 차량의 화재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조건에서 EGR 쿨러 누수로 퇴적된 집진물이 EGR 밸브

를 통해 들어온 고온의 배기가스와 만나 불티가 발생하고 엔진룸 흡기시스템(흡기매니폴드)에 붙어 불꽃으로 확산돼 화재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8월 18일 BMW 측이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던 화재 발생 조건과는 다르다는 게 민관합동조사단의 설명이다.

그러나 BMW 측이 현재 리콜을 진행하고 있는 EGR 모듈에 EGR 밸브가 포함되어 있어 추가적인 발견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자발적 리콜 중인 BMW 디젤 차량의 근본적인 화재 원인은 EGR 쿨러의 누수로 인한 화재 가능성이며 이는 이번엔 민관합동조사단이 밝힌 중간 조사 결과와도 동일하다. 현재 리콜 작업은 EGR 밸브가 포함된 EGR 모듈 전체에 대한 교체이며 EGR 밸브, 바이패스 등은 화재의 주원인이 아닌 조건 중 하나이다.

업계 관계자는 “EGR 밸브는 EGR 모듈 안에 포함된 것”이라며 “화재의 근본적인 원인은 쿨러의 냉각수 누출이며, 바이패스 밸브 열림은 조건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양성문 기자 ysw@

# 공기업 최초 中企 기술지원, 동반성장의 등불

## 혁신도시 10년

### 나주 ② 한국전력

2020년 300개 스타트업 육성 계획  
기업 초기 인프라·연구시설 등 지원  
中企와 해외시장 판로개척도 진행  
‘KEPCO 수출지원포털’ 개설·운영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1993년 공기업 최초로 ‘중소기업 기술지원실’을 설치했다. ‘동반성장’에 대한 개념이 희미하던 시절부터 25년 동안 중소기업과 동행한 셈이다.

한전은 중소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해 우수한 기술력과 특허권을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제공한 것을 시작으로 동반성장지원센터를 설치해 신제품, 신공정 개발을 위한 협력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 경영 및 품질시스템 인증, 국내외 공인 인정시험 비용지원,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수 있게 했다.

7일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동반성장제도는 한전뿐 아니라 협력업체에도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공사는 동반성장을 통해 우수한 전력기자재의 개발과 납품으로 고품질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중소기업에는 기술력 축적, 국가 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국제 경쟁력 향상, 해외 수출경쟁력 제고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최근 사내·외 유망 스타트업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는 2020년까지 300개 스타트업 발굴, 육성을 통한 에너지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달려온 결과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180개의 스타트업을 발굴했다.

한국전력은 연구개발 역량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우선 연구개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ICT(정보통신기술)융복합, 산학연 합동 과제 발굴을 활성화할 예정



나주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전력공사 사옥 전경.

/한국전력공사



쿠웨이트 수출추진회.

/한국전력공사

이다. 사물인터넷과 신소재개발 등 미래 기술형 과제중심의 사내·외 특별 공모를 시행함과 동시에 대학, 연구기관 등과 기술교류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스타트업, 소규모 기업 등 연구소가 없는 기업의 초기 연구 인프라 비용과 에너지밸리 기업개발원 연구시설 사용료를 지원하며 한국전력공사의 전문인력들을 활용해 연구컨설팅을 시행하는 등 에너지신산업 기술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성하고 운영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창업 및 신규제품 개발기업에 공공기관 납품기회를 부여해 초기판로를 지원하며 중소기업이 자체 개발한 제품에 대해서도 성능 확인이 가능하도록 테스트베드를 제공할 예정이다.

창업기업 또는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에 대해서도 각각 50억원 규모씩 시범구매한다. 테스트 베드란 새로운 기술, 제품, 서비스의 성능 및 효과를 시험할 수 있는 환경 혹은 시스템이나 설비를 뜻한다.

이밖에 한국산학연합회와 같은 전문 교육기관을 활용한 연구개발 기획 교육, 수출실무자 무역아카데미 과정,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를 위한 실무형 교육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소기업과의 동반 해외시장 판로개척도 진행한다. 현재 수출추진 브랜드 제도인 KTP(KEPCO Trusted Partner)를 운영하며 기술력은 있으나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해외 타깃 국가를 선정해 수출추진회와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우수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도 지원하고 있다. KTP는 수출역량이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한국전력공사의 수출추진 브랜드 사용권(기업 홈페이지, 카달로그 등)을 주고 해외 시장개척단에 참가 기회를 우선 부여하는 등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 역량을 제고하고 있다.

한편 한국전력공사는 유망제품을 보유한 수출 중소기업과 내수기업들이 해외전시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온라인 수출지원을 위해 ‘KEPCO 수출지원포털’을 지난 8월에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수출지원포털은 해외 시장정보와 해외 입찰정보를 알리고 e마켓플레이스, 수출지원사업 안내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에너지전환기의 신기술 동향 파악을 위해 해외 선진 전력사에 대한 벤치마킹을 시행해 신사업, 디지털전환, 안전 등 주요 이슈를 파악하고 대응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며 에디슨전기협회(EEI), 아태전기협회(AESIEA), WEC(세계에너지협회)등 국제 전문기관과 협업체 해외시장 개척에 대한 정보 공유 지원도 계획 중이다. /정연우 기자 yw964@metroseoul.co.kr



## UAE·필리핀·중국 등 24국 39개 사업 수행

### 동북아 슈퍼그리드 중장기 프로젝트 추진

한국전력공사는 UAE, 필리핀, 중국 등 24개 국가에서 39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기존 발전사업뿐만 아니라 재생 에너지를 비롯한 에너지 신산업의 다양한 분야로 해외사업을 다각화하며 동북아 에너지 협력시대를 이끌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UAE 원전사업의 성공이 사우디아라비아 등 다른 나라에서도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현재 한국전력공사는 동북아의 에너지 협력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동북아 슈퍼그리드 중

장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슈퍼그리드는 국가 간 상호보완적인 전력유통을 가능하게 하고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광역 전력망이다. 풍력,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국전력은 슈퍼그리드 실현을 위해 지난 2016년 한·중·일·러 간 ‘계통연계 예비타당성 공동연구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7년 2월에는 한·중 구간의 본격적 사업 추진을 위해 ‘한·중 전력계통 연계 사업개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오는 2022년까지 사업 착공이 가능하도록 슈퍼그리드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정연우 기자

## 120년 노하우로 미래 에너지산업 선도

### AI·IoT 등 4차혁명 핵심기술 확보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1898년 한성전기 설립을 시작으로 올해 창립 120주년을 맞았다. 현재 포브스 선정 ‘글로벌 기업 2000’의 전력 유틸리티 부문에서 3년 연속 최상위권을 기록하는 등 그 성과와 가능성을 국내외에서 인정받고 있다.

7일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에 따르면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산업간 경계가 빠른 속도로 허물어짐에 따라 한전은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과 같은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먼저 확보하고, 외부 전문기관과도 활발히 교류해 미래 에너지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우선 차세대 배전지능화 시스템으로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배전지능화시스템(DAS)은 전력계통 운영기술과 IT기술을 이용해 원거리에서 산재해 있는 배전 선로용 지능화 개폐기를 배전센터에서 원격으로 감시, 제어하고 고장 구간을 자동 인식하는 동시에 전압, 전류 등 선로운전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종합제어시스템이다.

한국전력은 1998년도에 지능화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2017년도에 전사 배전 선로 개폐기의 62.6%인 11만295대를 지능화개폐기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

로 설치했다. 이에 한국전력공사는 오는 2020년까지 약 300억원의 연구예산을 투입해 배전분야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차세대 배전지능화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이는 인공지능, 가상, 증강현실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된 시스템으로, 미래 배전 계통에 대비하기 위해 자동으로 고장구간을 판단해 무 정전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기술을 개발, 적용하고 있다.

한편 한국전력공사는 고객의 고품질 전력에 대한 요구 수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현재 50%인 배전지능화율을 2030년까지 90% 이상으로 올릴 계획이다. /정연우 기자

### 한-일 과거사 논란, 경제갈등으로 확산되나

# 강제징용 배상, 韓 조선 WTO제소로 화풀이? 日의 몽니

분쟁해결절차 상의 양자협의 요청  
저가수주 조장에 피해 야기 주장  
양국 간 정상외교까지 영향 받아

일본 정부가 최근 일제 강점기 조선인 징용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과 관련, 우리 정부의 조선업체 공적지원 문제를 트집잡으며 경제 보복으로 응수하는 모양새다.

성격이 다른 두 사안을 연결해 국제사회에 한국이 부당하다는 이미지를 만들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은 6일 오전(제네바 현지시각), 조선산업 지원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 상의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일본은 우리 정부가 WTO 보조금협정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조선산업을 지원함으로써 독자생존이 어려운 선박기업의

저가수주를 조장했고, 이로 인해 일본 조선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일본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에 의해 이루어진 대우조선해양 정상화방안 관련 지원 및 성동-STX조선의 구조조정 등이 WTO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한국선박해양과 현대상선간 선박건조 금융계약,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 따른 선박 신조 지원, '조선산업 발전전략'에 따른 친환경선박 건조 지원 등에 대해서도 WTO 보조금협정에 위반한다는 취지의 양자협의 요청서를 주재내 대한민국대사부를 통해 송부해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일본측이 문제 제기한 일련의 사항들의 통상법적 합치성을 재점검 할 것"이라며 "일본과의 양자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기관들의 지원이 상업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국제

규범에 합치한다는 점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르면 협의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30일 이내에 제소국과 협상을 개시해야 한다. 이후 60일간 협의를 통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 제소국은 WTO에 분쟁해결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일본의 강한 반발은 양국 간 정상외교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달 중순 싱가포르와 파푸아뉴기니를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양국 간의 정상회담을 갖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국간 대립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불을 지피고 있다. 그는 일본의 외교사령탑인 만큼 양국 간 이견을 조정하

고 갈등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막말 수준의 비난 공세를 이어갔다.

고노 외무상은 지난 3일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징용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발언한데 이어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 "어떤 나라도 한국 정부와 일하기 어려울 것", "폭거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이라는 등 매일 도발을 감행했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최근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문제의 근원은 도외시한 채, 우리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을 계속 행하고 있는데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번 사안을 정치적으로 과도하게 부각하는 것은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을 일본 정부가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지난달 30일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 한 직후 전성현(17)양이 자신이 직접 만든 강제징용 기림 배지를 원고 이춘식(94) 씨에게 전달하고 포옹하고 있다. /연철뉴스

## 단전·단수에 쫓겨까지... 갈등 여전

### 르포

#### 노량진 수산시장 가보니

상인-수협 '대립' 사흘째 이어져  
수협 '보이기 식' 제안 못 미더워

'철거' 벽에 쓰여진 붉은 글씨를 뒤로하고 계단을 내려가니 찬 공기와 함께 컴컴한 옛 노량진수산시장이 보였다. 단전·단수3일째, 상인들은 초를 켜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

7일 오전 6시, 서울 동작구 옛 노량진수산시장 내부는 굉음으로 가득 차다. 지난5일 이렇게 길어질 줄 몰라 바가지로 수조 안의 물을 퍼다 붓기를 반복했던 상인 김모(60)씨는 어제(6일) 발전기를 빌렸다고 했다. 그는 "하루에 작은 건 5만원, 큰 건 20만원까지 한다"며 "수산시장에 물·전기를 끊어 상인들을 말려 죽일 셈인가 보다"고 했다.

시장 내부는 상인들이 켜놓은 촛불로 간간히 형체만 알 수 있었다. 이른 아침 문어를 구매하기 위해 신(新)시장에 들렀다 구시장으로 왔다는 한 부부는 문어 형체만 보고 "알마냐"고 물었다. 촛불아래서 불필요로 장부를 꼭꼭 눌러쓰고 있던 상인 김모씨는 어두운 불빛에 손님이 온지도 모르다 목소리를 듣고서야 랜턴으로 문어를 비추며 가격을 말했다.

시장 한 켠에서는 아침식사가 이어졌다. 어제 늦은 저녁까지 농성을 했다는 상인들은 모두 "임대료와 점포면적 때문에 신시장 입주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진열을 마치고 물에 밥을 말아 한술 떠던 이모씨는 "새 시장은 통로가 좁아서 물건을 보관하고 진열하기도 힘들다"며 "수협이 약속과 달리 점포 면적은 줄이고 임대료를 높여서 거부하는 건데 왜 우리가 피해를 봐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옆에서 난로를 쪼며 몸을 녹이던 김모씨도 "(신 시장에서) 수조로 장



7일 오전 6시, 구 노량진수산시장앞에 '수협은 노량진수산시장 강제집행 즉각 중단하라'는 플랜카드가 걸려있다. /나유리 기자

사하는 사람들은 진열대가 나와있어 그나마 낫다"며 "생굴, 소라 등 박스 채로 팔아야 하는 상인들은 박스를 점포 안에 넣어야 하는데 박스가 다 들어가지도 못할 뿐더러 나 앉을 자리조차 없다"고 한숨을 쉬었다.

상인들은 이제 수협 측의 제안도 못 미덥다고도 했다. 1.5평의 매장을 2평으로 늘리고 300여원의 지원을 해준다고 했지만 어떤 계획서도 없이 말로만 '보이기 식' 제안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생굴을 파는 김모씨(55)는 "1.5평을 2평으로 늘려준다고 인심 쓰듯 말하지만 2평의 임대료는 우리가 다 내야 하는 것"이라며 "신시장 내부는 칸막이가 다 되어있는데 그걸 모두 부시고 2평으로 늘려준다는 건지, 장사가 잘 되도록 에스컬레이터를 추가 설치해 준다는데 그러면 점포는 개수가 줄거나 작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해주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상인들의 질문에 수협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우선 신시장에 들어오라고만 해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 ◆명도소송 유명무실... 답답한 수협

답답하긴 수협도 마찬가지다. 앞서 4차례 법원의 강제집행이 있었지만 상인들이 무력으로 막아 질차에 따라 단전·단수를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

수협은 지난 2015년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현대식 건물을 완공하고

2016년 3월 정식으로 신 노량진수산시장의 문을 열었지만 상인들이 임대료와 점포면적을 문제로 신 시장으로 입주하기를 거부하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그러나 이후 수협은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시작(2016년 3월)으로 올해까지 약 3년간 명도소송을 이어왔고 지난 8월 17일 대법원은 원고인 수협 측의 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수협 입장에서는 신 시장 입주가 시작되면서 계약이 만료된 구 시장은 허물고 도로를 새로 놓는 등 추가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상인들이 신시장 입주를 거부해 2년 넘게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셈이다.

수협은 구 시장 상인들의 설득력 없는 주장으로 더 이상 도매시장의 기능을 마비시켜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수협관계자는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로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어민들이 내보낸 수산물 출하를 막는 행위는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는 9일 오후 5시까지 입주 희망자에 대한 신청서를 접수해 이전을 지원하고, 신청 종료 후 신시장 잔여 자리는 어업인과 일반인에 배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상인들이 오는 9일까지 이전하지 않으면 신 시장에서 함께 장사할 뜻이 없다는 것으로 보고 붕괴 우려가 있는 구 시장을 우선 폐쇄, 강제 퇴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 '주택시장 흑반기 예고'

## 전국 HBSI 전망치 40선으로 추락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

11월에도 주택시장 흑반기가 전망된다. 9·13 부동산 대책 등의 영향으로 주택사업자가 예측하는 11월 시장 전망치가 22개월 만에 40선으로 추락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택산업연구원)이 7일 발표한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SI) 10월 전망치 및 9월 실적치' 자료를 보면, 전국의 11월 전망치는 47.4로 전월 대비 21.6포인트 하락했다.

9·13 대책 등 정책적 요인으로 일제히 급락했던 수도권 등의 하락세가 이어지며 2017년 1월(48.1) 이후 22개월 만에 40선을 기록한 것이다.

HBSI(Housing Business Survey Index)는 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매월 '공급자 입장에서 주택사업 경기를 어떻게 보는가'를 조사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공급시장 지표다. 매월 이달의 실적과 다음 달의 전망을 동시에 조사하며, 지수(1~200)의 값이 100 이상이면 기대감이 높다는 것이고 그 이하는 반대를 뜻한다.

지난달 30포인트 이상 급락했던 서울과 세종은 10월에 일부 조정과정을 거쳐면서 70선에 머물렀다.

서울의 경우 9월 전망치는 112.5였으나 실적치는 77.0에 머물렀다. 10월 전망치는 80.8로 급락했고 실적치는 74.6으로 더 낮았다. 11월 전망치는 전월과 비슷한 수준인 73.8이다. 세종시도 지난 9월 103.4로 서울과 함께 전망치 100선을 넘었다가 10월 67.7로 35.7포인트가 빠졌다. 11월 전망치는 77.7로 오히려 올랐다.

주산연은 "공급과잉 및 지역산업 위기에 따른 지방주택시장의 침체와 정부의 연이은 규제로 수도권 주택사업경기가 위축된 상태"라며 "아울러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등에 의한 수요위축, 재개발·재건축 HBSI 전망치 등의 동반 하락으로 11월 주택건설 수주는 더욱 악화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11월 요인별 HBSI 전망치는 재개발은 76.9, 재건축 75.5, 공공택지 84.3으로 전월 대비 각각 9.6포인트, 9.1포인트, 2.9포인트 동반 하락했다. 모두 기준선(100)을 하회해 주택사업자의 주택건설 수주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채신화 기자 csh9101@

## 무상급식 확대 '복지 포퓰리즘' 비판도

### >> 1면 '미래세대 위한 보편...'서 계속

박 씨는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서라도 무상급식은 선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장인 김모(34) 씨는 "요새 누가 밥 굶고 다니냐. 서울시의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은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다"고 지적했다.

무상급식 확대의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다. 올해 기준 무상급식 예산은 약 4533억원에 달한다. 이를 서울 전체로 확대하면, 2019년 970억원, 2020년 1580억원, 2021년에는 약 22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 예산지원 비율은 서울시 30%, 서울시 교육청 50%, 자치구 20% 등이다.

또 하나의 논란은 그간 무상급식 대상

이 아니었던 사립초등학교와 국제중학교도 이번 무상급식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그 돈으로 차라리 학교 화장실 등 시설 공사를 하거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쓰는게 낫다는 주장이 나온다. 무상급식 보다는 급식을 질을 높여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무상급식 실시 후 급식의 질이 낮아져 급식을 먹지 않는 아이들이 많아졌다는 문제도 있다. 무상급식 보다는 집값이나 물가를 잡으라는 요청도 이어진다.

따라서 세금을 재원으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무상급식은 세금이 들어간다는 면에서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권을 노린 박원순 시장의 선심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김현정 기자 hik1@

# ‘최초 금융지주사’의 부활... 우리은행, 지주사 재전환

금융위, 금융지주 설립 예비인가  
검직 무계... 선출방식·임기 쟁점  
12월 28일 주총 전까지 선출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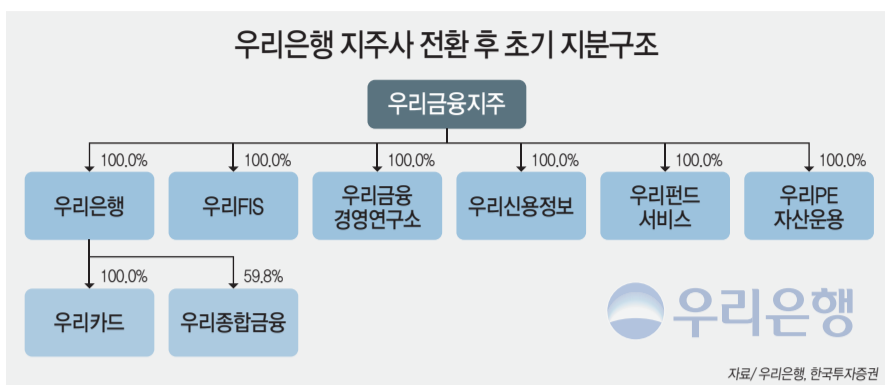
우리은행이 지주 해체 4년 만에 다시  
금융지주사로 부활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의 금융지주 회사 설립을 예비인가했다.

지주사 전환을 추진할 때부터 인가를 받는 데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봤다.

문제는 지배구조다. 이미 행장과 회장 겸직과 분리 여부를 놓고 추측과 하마평은 무성한 반면 결정해야 마감시한은 촉박하다.

우리은행은 다음날인 8일 바로 이사회를 열고 지주사 회장 등 지배구조를 비롯해 지주사 설립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초 금융지주→매각·해체→지주 전환  
우리은행이 지주 해체와 부활이라는 비효율적인 과정을 거치게 된 것은 공적 자금이 투입되면서다.

우리금융지주는 2001년 평화, 경남, 광주은행과 하나로종합금융이 더해져 국내 최초 금융지주사로 설립됐다. 이 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12조8000억원 가량의 공적자금이 들어갔다.

공중분해 된 것은 2014년이다. 정부가

지분매각에 나섰지만 ‘통’으로 사겠다는 곳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결국 ‘조개’ 팔아야 했다. 우리투자증권은 NH농협금융, 우리아비바생명은 DGB금융, 경남은행은 BNK금융, 광주은행은 JB금융으로 넘어갔다.

민영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우리은행 지분 18.4%를 가진 최대주주다. IMM PE와 동양생명, 한화생명,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유진자

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으로 구성된 7대 과점주주의 지분은 27.22%다.

◆끝나지 않은 민영화 지주전환 ‘잡음’

지주전환을 추진하면서 잡음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금융당국이 최대주주로서 나름의 방침을 밝히겠다고 하면서다. 우리은행 이사회에서 논의될 내용보다는 정부 의견을 전달할 예보 측 이사의 입만 바라보게 됐다.

금융위원장의 말 한 마디에 따라 지주 회장직에 대한 관측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1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우리은행 지분 18%를 갖고 있는 최대주주여서 당연히 지배구조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우리도 생각이 있고, 당연히 저희가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론은 회장직 분리로 쏠렸고, 순식간에 회장 후보군들의 하마평이 쏟아졌다.

그러나 최 위원장이 지난달 18일 “다른 은행들을 봐도 겸직을 했다가 결국은 분리하는 쪽으로 갔다”면서 “우리은행은 은행 비중이 90%가 넘어 처음부터 분리하는 게 맞는 지, 겸직으로 하면 언제까지 겸직을 할 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생각해 봐야 한다”고 발언했다.

그러자 초기 겸직이 유력해지면서 그 기간을 두고 다양한 추측이 나오기 시작했다.

지주사 회장을 결정해야 할 마감시한은 오는 23일이다. 12월 열리는 주주총회 안건인 주주이전계획서에 지주사 회장 이름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이날 전까지는 회장이 누구인지 정해야 한다.

지주 설립은 카드와 증권은 은행 밑에 계속 두고, 우리은행을 포함한 기타 6개 법인을 지주 자회사로 두는 구조로 추진한다. 주주총회는 다음달 28일이며, 신주는 내년 2월 13일 상장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 9월 은행대출 연체율 0.54% 전월 대비 0.07%p ‘하락’

국내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54%로 전월 말 대비 0.07%포인트 하락했다. 연체채권 정리가 2조3000억원 규모로 신규연체 발생액 1조3000억원을 웃돌았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79%로 전월 말 대비 0.09%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55%로 전월 말 대비 0.11%포인트 하락했고,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도 0.34%로 전월 말 대비 0.03%포인트 하락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1.78%로 전월 말 대비 0.02%포인트 낮아졌다. 지난 4월 성동조선해양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큰 폭으로 상승한 이후 1.80% 안팎을 유지 중이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26%로 전월 말 대비 0.04%포인트 하락했다.

연체율은 주택담보대출 0.19%, 신용대출 등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0.42%로 전월 말 대비 각각 0.02%포인트, 0.08%포인트 낮아졌다.

/안상미 기자

## 저금리 지속에 생보사 주가 ‘울상’... 금리인상이 ‘관전’

저금리 인한 이원차마진 민감도 커  
위험손해율 하락세, 시차이익 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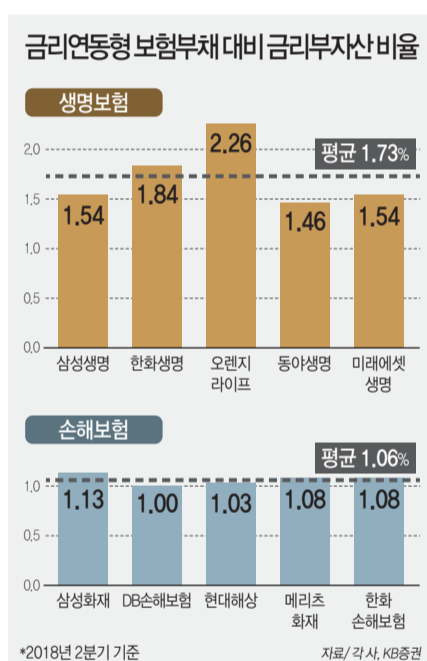
생명보험사들의 주가가 금리의 역곡에 맥 빠진 모습이다. 시장금리 하락으로 인한 이원차마진의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큰 구조(금리부자산의 규모가 금리연동형 부채 대비 1.5~2.3배) 때문이다.

생명보험사의 실적과 주가가 살아나려면 금리가 올라야 한다. 보험주의 주가 회복 메커니즘은 ‘시장금리 상승→운용자산이익률 개선과 공시이율 인상→보험상품 판매와 신규계약 유입→자산과 이익 성장→실적 및 밸류에이션 회복’이다.

7일 증권가에 따르면 생명보험주의 12개월 예상 평균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46배에 머물고 있다. 최근 2년 평균(PBR 0.61배) 대비 23.4% 낮은 수준이다.

장단기 금리차 축소로 이원차마진(보험사가 보유한 금리부자산에서 보유금리와 부채 평균 부담이율의 차이) 개선이 늦춰질 것이라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생명보험사의 금리부자산은 금리연동형 부채 대비 1.5~2.3배 가량 커 시장금리



하락으로 인한 이원차마진의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크다. 시장금리 상승 구간에서는 이원차마진의 관리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반면 금리 하락 구간에서는 개선 여력이 제한적인 구조다.

금리부자산 중 잔존만기 10년 이상 장기자산의 비중도 높아짐에 따라 장기금

리의 하락이 생명보험사의 보유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더 커질 전망이다. 올해 말까지 RBC(위험기준 자기자본)상 산출되는 부채의 듀레이션(채권 가격변화 민감도) 잔존 만기 구간이 30년(현행 25년)으로 확대된다. 또 2021년 도입 예정인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에서는 부채의 잔존 만기에 제한이 없다. 부채의 듀레이션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자산-부채 듀레이션 매칭을 위한 장기자산의 비중 확대가 예상된다.

반면 부채 부담이율의 하락세는 더디다. 생명보험사의 평균 이원차마진은 -78bp(상반기 기준, 1bp=0.01%포인트), 손해보험사 평균은 43bp로 추정된다. 또 금리연동형 부채에 대한 평균부담이율은 3.1%로 부담이 크지 않지만 금리확정형 부채에 대한 평균 부담이율은 5.7%로 보유금리(3.4%)보다 높다.

시장금리가 오르지 않는다면 보험사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이원차마진의 개선이 쉽지 않은 구조다.

KB증권 이남석 연구원은 “보험주의 구조적인 회복 시그널이 될 수 있는 이원차마진의 개선이 지연될 전망이다”면서

“장단기 금리차의 축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보험사별로 자산-부채 듀레이션 매칭을 위한 장기채권의 비중 확대 과정에서 금리부자산에서의 보유금리 하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연동형 계약에 대한 공시이율 인화로 부채 부담이율을 꾸준히 낮추고 있으나 고금리확정형 계약에 대한 부담을 단기간 내 털어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보험 상품의 경쟁력 악화로 신규계약 유입세도 둔화됐다. 상반기 기준 생명보험사의 초회보험료는 3조원(전년 대비 -49.2%), 보장성 초회보험료는 6877억원(-21.9%), 저축성 초회보험료 2조3576억원(-53.9%) 등이다.

DB금융투자 이병건 연구원은 “생보사들의 저축성 신계약이 감소해 예정사업비 확보가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보장성 신계약 판매 확대에 의해 신계약비 지출이 늘어나 비차손의 개선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고 위험손해율 하락세가 멈춰 사차이익도 답보 상태이다”면서 “생보사의 경우 주가에서 차지하는 금리 영향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김민호 기자 kmh@

## 제56차 초보자를 위한 부동산 경매교육

400,000원 → 60,000원 (85% 할인)

- (평일반) 2018년 11월 14일~12월 6일  
매주 수, 목요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 총8강
- (주말반) 2018년 11월 17일~12월 8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30분 / 총8강
- 현장교육 (별도옵션) : 300,000 → 130,000원  
11월 25일(일), 12월 2일(일), 12월4일(화)

강사: 이영진

※사전 수강 신청 필수 - 홈페이지 참조  
www.leadersauction.com

교육문의 02) 521-9111 (강남역 5번출구)

### KEB하나은행 새로워진 AI 금융비서 ‘하이 बैं킹’

KEB하나은행은 똑똑하고 편리해진 인공지능 HAI(하이)뱅크 서비스를 새롭게 개편하고, 12월 말까지 ‘그랜드 오픈’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문자 인식 체계에 기반했던 기존 HAI뱅크 서비스에 손님의 음성을 인식하고 반응하는 STT(Sound to text), TTS(Text to sound) 기술, 외국 화폐를 촬영하면 원화 환전금액을 바로 알려주거나 공과금을 지로 촬영으로 수납하는 HAI렌즈 카메라 등 혁신적인 신기술이 추가로 도입됐다. 특히 3중 인공지능경망 구조의 딥러닝 대화형 AI 엔진이 새롭게 탑재되어 손님의 이야기를 한층 더 정확하고 빠르게 파악하고, 똑똑하게 응대할 수 있는 서비스 기반이 마련됐다.

KEB하나은행은 HAI뱅크서비스의 혁신적 진화에 발맞춰 오는 12월 말까지 ‘HAI(하이)뱅크 그랜드 오픈’ 이벤트를 실시한다.

HAI뱅크를 신규 가입하면 하나멤버스 앱에서 1000 하나머니를 선착순 5만명에게 지급하며, 이체·상품가입·공과금납부 등 거래시 추천을 통해 갤럭시 노트 9등의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김민호 기자

### KB국민은행 3000억 규모 10년 만기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KB국민은행은 지난 6일 3000억원 규모의 10년 만기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건부자본증권(상각형 후순위채권) 발행은 기발행 후순위채권의 자본 인정금액 감소와 자본규제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자본확충 목적으로 지난달 24일 이사회결의를 통해 결정됐다.

발행금리는 국고채 10년 금리에 0.68%를 가산한 2.96%으로 결정됐다. 올해 시중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권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KB국민은행은 우수한 영업실적과 양호한 신용도를 바탕으로 연기금과 보험사 등 다수의 기관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안상미 기자

# 시가 8K급으로 영상 또렷하게... 음성명령은 '덤'

## 삼성전자 '8K QLED TV 체험행사'

UHD·SD급 방송도 8K로 변환  
빅스비 '스마트 싱스'로 연동도  
한종희 사장 "올해 8K시장 원년"

삼성전자가 8K 시대를 선언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업스케일링 기술로 콘텐츠 부족 우려도 깨끗하게 씻어냈다.

삼성전자는 7일 서울 반포 플로팅 아일랜드에서 QLED 8K TV 체험행사인 'Q LIVE'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체험존인 'Q Live 스튜디오'와 기술 시연 공간인 '미디어 세션'으로 구성했다.

### ◆8K 영상, TV가 직접 만든다.

8K는 가로 세로 해상도 7680×4320를 뜻한다. 아직 4K TV도 대중화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콘텐츠가 공급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직접 8K 영상을 구현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8K QLED에 퀀텀 프로세서 8K를 탑재하면서다.



삼성전자는 7일 8K QLED 체험행사 'Q LIVE'를 개최했다.

/삼성전자

퀀텀 프로세서는 인공지능(AI) 화질 엔진이다. 수백만개 영상 데이터를 비교하고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해상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업스케일링에 '머신러닝' 기술을 도입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저장된 영상은 물론이고 실시간 영상까지 8K 해상도로 변환해준다. UHD나 FHD, SD급 방송까지도 8K로 보여준다.

퀀텀 프로세서는 영상을 분석해 사운

드를 최적하는 기능도 해낸다. 스포츠 영상에서는 관중 환호성과 같은 현장음을, 뉴스에서는 아나운서 음성을 부각하는 등이다.

### ◆빅스비도 TV에 '썩'

8K QLED는 삼성의 인공지능 플랫폼인 '빅스비'도 구현했다. 휴대폰 갤럭시와 같이 음성 명령으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8K QLED 빅스비는 '스마트 싱스'로

도 연동된다. TV와 연결한 모든 IoT 가전 제품을 음성으로 제어 가능하다.

'유니버설 가이드'는 사용자에게 콘텐츠를 추천하는 인공지능이다. IPTV와 넷플릭스 등 콘텐츠 플랫폼 벽을 허물고, 사용자가 사용 가능한 모든 콘텐츠를 추천 대상으로 한다.

내년부터는 원격 워크스페이스 기능도 제공할 예정이다. 윈도 접속 ID만 있으면 원격으로 PC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 PC뿐 아니라 휴대폰 등을 멀티태스킹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 ◆시장 안정화 '머지 않아'

삼성전자는 8K QLED 흥행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가장 중요한 근거로는 프리미엄 TV 시장 호조를 들었다. 전 세계적으로 프리미엄 시장이 기대 이상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머지 않아 8K가 프리미엄 시장 10% 이상을 점유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형 TV 인기도 8K TV 시장을 확대할 요인으로 분석했다. TV가 커질 수록 높은 해상도를 필요로 하는 만큼, 8K도 TV 대형화와 발맞춰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4K 시장 급성장도 8K TV 성장 가능성을 짐작해볼 사료로 들었다. 4K TV를 출시한지 4년여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글로벌 점유율이 50%에 육박한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소비자들이 높은 해상도를 선호하는 경향을 유추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콘텐츠 부재도 곧 해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들어 콘텐츠 공급사 경쟁이 심해지면서 4K 콘텐츠 제작이 이어졌던 것과 같이, 8K 영상에서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8K 대중화를 암시하기도 했다. 이번에 선보인 8K QLED는 65인치, 72인치, 82인치, 85인치 등 대형 제품에 국한했다. 삼성전자는 고민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종희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사장은 "TV 시장의 초대형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해 줄 해상도와 화질 기술이 중요해졌다"며 "QLED 8K를 통해 올해를 8K 시장의 원년으로 삼아 프리미엄 TV시장에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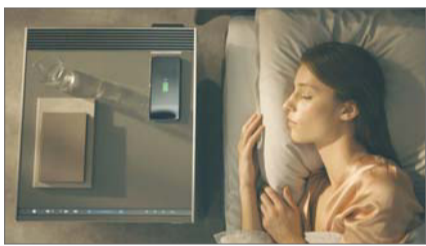
## LG전자 전국 주요매장서 'LG 오브제' 판매

LG전자 오브제가 소비자들을 찾아간다. LG전자는 7일 전국 주요매장에 오브제를 전시하고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LG 오브제란 LG전자의 새로운 프리미엄 브랜드다. 가구와 가전을 결합해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공간 연출 효율을 극대화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제품 라인업은 TV와 오디오, 공기청정기와 냉장고 4종이다. 전량 주문 제작으로 판매되며, 매장에서는 오브제 디자인과 성능을 소개하고 주문을 받고 있다.

LG전자는 오브제 출시를 기념해 이탈리아 생활용품 디자인 회사인 '알레시'가 만든 명품 와인 오픈너 증정 프로모션



LG전자는 7일 전국 매장에 오브제를 전시한다고 밝혔다.

/LG전자

을 진행한다. 오브제를 디자인한 '스테파노 지오반노니'가 소속된 회사다.

또 오브제 TV 구매 고객에는 30만원 모바일 상품권, LG 오브제 제품을 2대 이상 구입하는 고객에는 냉장고와 가습 공기청정기, 오디오 각 10만원 모바일 상품권을 추가로 선물한다.

/김재용 기자

## 끊이지 않는 LG전자 OLED TV '번인논란'

# 빠른 조치에도 효과 미미... 소비자도 외면

줄줄이 번인사례에 화질 논란까지  
"해결 못하면 시장 하락세 면치 못해"

LG전자가 OLED TV 번인(고정된 화면을 장시간 켜놓을 경우 화면이 바뀌어도 해당 이미지가 사라지지 않고 화면 상에 남아 있는 현상) 논란을 좀처럼 씻어내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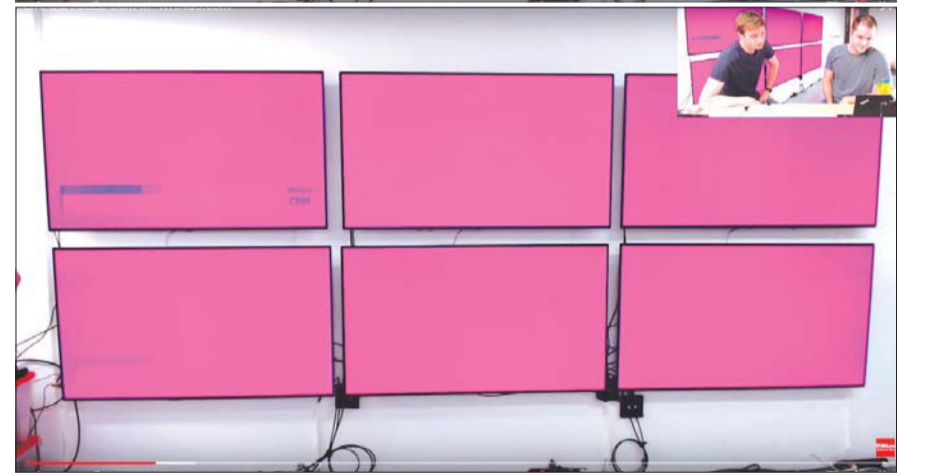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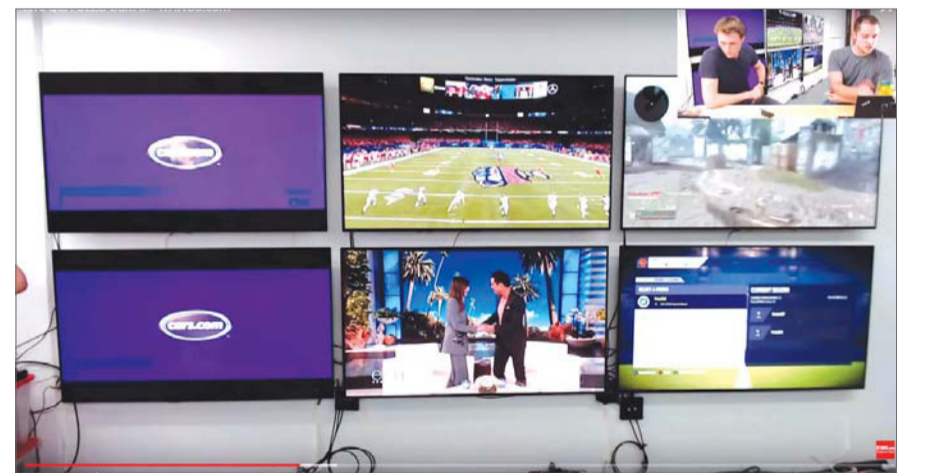
번인 사례가 꾸준히 보고 되는데다가, 화질 논란까지 겹치면서 점유율도 떨어지는 모습이다.

6일 시장조사업체 NPD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 8월 미국 평면 패널 TV 시장에서 15.2% 점유율을 차지하는데 그쳤다. 삼성전자(34.3%)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성적이다. 오히려 비지오(11.4%)와 소니(10.8%)에 빠르게 추격당하고 있다.

아직 발표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9월에는 LG전자 등 OLED TV전체 판매량이 삼성전자 QLED TV 보다 적다는 추정도 기정사실화된 상태다.

프리미엄 TV 시장에서는 더 심각하다. 2500달러 이상 TV 시장에서 LG전자는 9월 셋째주 기준 20.5% 점유율에 머물렀다. 삼성전자(55.9%)뿐 아니라 소니(23.1%)보다도 뒤쳐졌다. 75인치 이상 대형 TV 시장에서는 9.6%로 삼성(68.7%)과 소니(16.7%) 등 경쟁 업체에 크게 밀려난 모습을 보였다.

업계 관계자들은 LG전자 OLED TV가 여전히 번인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데 따른 소비자 신뢰도 하락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캐나다 IT리뷰 매체 알팅스(Rtings)는 최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LG OLED TV 번인 현상을 공개한 바 있다. 6대에서 TV 방송을 4000시간 재생한 결과 3대에서 번인 현상을 일으켰던 것이다. 앞서 알팅스는 지난 1월에도 LG OLED TV를 테스트한 결과 4주만에 번인을 일으켰다고 확인하기도 했다.



알팅스가 유튜브로 생중계한 LG전자 번인 테스트.

/유튜브 캡처

지난 7월 미국에서 열린 디스플레이 전문학회에서도 전시된 LG OLED TV가 번인을 나타냈다.

LG OLED TV 번인 논란이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니다. 2015년 LG전자가 OLED 홍보를 위해 N서울타워에 설치한 LG OLED터널에서 번인이 생긴 이후, 각지에서 꾸준히 보고돼왔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설치됐던 OLED TV는 번인 현상에 따라 LCD 제품으로 교체되기도 했다. <본지 5월 30일자 4면 참조>

화질 문제도 불거지는 모양새다. 최근 미국 심의기구인 전국광고부(NAD)가 '완벽한 블랙'과 '무한대비' 문구를 삽입한 LG OLED TV 광고를 중단하라고 권고하면서다.

LG OLED TV가 제품 결합인 번인뿐 아니라 색표현 능력에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의미다.

LG전자는 번인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펌웨어를 업데이트하고, 잔상 관리 알고리즘을 도입하면서 번인 현상 억제에 나섰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화면 밝기 출력을 민첩하게 변경했을 뿐, 실제 효과는 미미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TV가 더 커지고 고품질 영상 수요도 늘어나는 추세다. OLED 번인과 화질 논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OLED TV가 번인 현상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프리미엄뿐 아니라 TV 시장에서도 하락세를 면치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재용 기자

## "소비자·신기술·임직원, 혁신의 시작"

### 삼성전자 '테크포럼 2018'

"삼성전자는 매일 특정하기 어려운 수백만의 소비자와의 만남, 빠르게 변화하는 신기술과의 만남, 다양한 개성을 가진 임직원과의 만남 등 세 가지 낯선 만남에 직면하고 있다.

삼성전자 김현석 CE(소비자가전) 부문 사장이 6일(현지시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테크포럼 2018' 기조 연설에서 "삼성전자는 이런 낯선 만남들을 새롭고 재미있는 혁신의 시작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새로운 소비자들의 성향과 가치를 연구해 이해하고, 이를 제품에 반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삼성전자의 강점인 매년 판매되는 약 5억 대의 기기로 소비자들과의 접점을 생활공간 곳곳으로 더 확장하고 라이프스타일에 혁신을 가져오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사장은 "변화를 지속하는 가운데 다양한 글로벌 인재들이 조화롭게 일하고, 창의적 아이디어가 있으면 누구나



6일(현지시간)미국 실리콘밸리 마운티뷰에 위치한 삼성 리서치 아메리카에서 열린 '테크포럼 2018'에서 김현석 삼성전자 CE부문 사장이 현지 우수 인재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가치의 시작점인 '만남'을 주제로 기조 연설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

도전하는 조직 문화를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테크포럼 2018은 우수 인재들과의 교류를 위해 삼성전자가 개최하는 행사로 IT 업계의 미래 혁신 기술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 현대·기아차, 동남아 EV 공략... 그랩에 2.5억弗 투자

〈순수 전기차〉

〈동남아 최대 차량 호출 서비스 기업〉

순수 전기차 모빌리티 서비스 협력 그랩 드라이버 차량 호출 서비스 내년부터 현대·기아 전기차 활용 싱가포르 시범... 동남아 확대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오른쪽)과 그랩 앤서니 탄 설립자 겸 CEO가 6일 싱가포르 카펠라호텔에서 열린 '블룸버그 뉴코노미 포럼'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 /블룸버그 뉴 코노미 제공

현대·기아자동차가 동남아시아 최대 차량 호출 서비스(카셰어링) 기업 '그랩'에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를 결정했다. 이를 통해 2019년부터 순수 전기차(EV) 기반의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는 전략이다.

현대·기아차는 7일 그랩에 2억5000만 달러(약 2840억원)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현대차가 1억7500만 달러(1990억원), 기아차가 7500만 달러(850억원) 등이다. 지난 1월 현대차가 투자한 2500만달러(284억원)를 합치면 현대·기아차의 총 투자액은 2억7500만 달러(3120억원)에 달한다.

이번 협업은 지난 1월 현대차의 첫 투자 이후 양사가 전기차 부문에서의 협력 방안을 지속 논의하면서 성사됐다.

현대·기아차는 이번 투자를 계기로 그랩의 비즈니스 플랫폼에 현대·기아차의 전기차 모델을 활용한 신규 모빌리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그랩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주도하는 역할을 한층 강화하고 공유경제 분야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한다는 전략이다.

현대·기아차와 그랩은 협력의 첫 단계로 내년부터 그랩 드라이버가 현대·기아

차의 전기차를 활용해 차량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 프로젝트를 싱가포르에서 시작한다. 현대차는 프로젝트 시행을 위해 내년 초 전기차 모델 200대를 그랩 측에 최초 공급한다. 향후 기아차도 자사의 전기차를 추가로 공급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3사는 프로젝트 기간 동안 충전 인프라, 주행 거리, 운전자 및 탑승객 만족도

등을 면밀히 분석해 전기차 카셰어링 서비스의 확대 가능성과 사업성을 타진하고, 이후 전기차를 활용한 차량 호출 서비스를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주요 국가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현대·기아차는 그랩과의 협업을 통해 전기차 드라이버 대상의 유지 및 보수, 금융 등 EV 특화 서비스 개발도 모색할 계획이다. 또 모빌리티 서비스에 최적화된 전기차 모델 개발에도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현대·기아차와 그랩은 동남아시아의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충전 인프라 및 배터리 업체 등 파트너들과 새로운 동맹체 구축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그랩은 최근 싱가포르 굴지의 전력 공급업체인 싱가포르파워와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올해 말까지 급속 충전기 30기를 비롯 2020년까지 충전기 총 1000기를 구축하기로 했다.

동남아시아 차량 공유경제 시장은 중국,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시장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기준 하루 평균 모빌리

티 서비스 이용은 약 460만 건으로, 차량 공유서비스 선진시장인 미국의 500만 건에 육박할 정도로 성장했다.

그랩은 규모 면에서 중국의 디디, 미국 우버에 이어 글로벌 차량 공유시장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는 그랩은 동남아 8개국 235개 도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설립 이후 누적 25억 건의 운행을 기록했다.

한편 현대·기아차는 글로벌 차량공유업체들과 협력해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 대한 통합적 대응 체계를 갖춰 나가고 있다. 현대차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아이오닉EV를 활용한 카셰어링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인도 카셰어링 업체 레브, 국내 라스트 마일 배송 서비스 전문 업체 메쉬코리아, 미국 모빌리티 서비스 업체 미고, 중국의 라스트 마일 운송수단 배터리 공유 업체 임모터, 호주의 P2P 카셰어링 업체 카넥스트도어 등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기아차는 국내와 스페인 마드리드에 차량 공유서비스 '위블(WiBLE)'을 선보였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앱 다운받고 '더 쇼' 방청 가자

LGU+ 'U+아이돌라이브' 서비스 출시 기념행사 진행



모델들이 LG유플러스의 'U+아이돌라이브'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는 'U+아이돌라이브'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고 영상을 공유하면 공개방송 방청권 등 상품을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LG유플러스는 앱을 내려 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매주 추첨을 통해 SBSMTV '더 쇼' 방청권 2매(10명)를 증정한다. 방청권 당첨자는 매주 금요일 17시 U+아이돌라이브 공지사항 페이지 및 개별 공지된다.

또 12월 6일까지 U+아이돌라이브 내 공연 영상을 트위터에 공유하고 해당 URL을 첨부하면 추첨을 통해 ▲백화점상품권 5만원(1명) ▲도서문화상품권 1만원(100명) ▲도서문화상품권 5000원

(500명)을 제공한다.

U+아이돌라이브는 가입 중인 통신사 관계없이 구글 플레이스토어, 원스토어 등 스마트폰 앱마켓에서 무료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다. 11월 iOS 앱 출시로 아이폰 이용 고객도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김나인 기자 silkni@

## “韓, 미래차 연구개발 위한 亞 허브로”

벤츠 'R&D 코리아센터' 확장 사무실·연구 인력 두배 확대 자율주행 기술개발 역할 강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한국을 아시아 주요 시장을 위한 연구개발 허브로 조성한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7일 서울 스퀘어 빌딩에서 메르세데스-벤츠 차량의 연구개발을 위한 메르세데스-벤츠 R&D 코리아 센터(이하 R&D 코리아 센터)의 확장 개소식을 진행했다.

R&D 코리아 센터는 2013년 한국을 방문한 현 님러 AG 이사회 의장이자 메르세데스-벤츠 CEO 디터 제체 회장이 발표한 국내 투자 계획 중의 하나로, 2014년 개소했다.

이번 확장 개소를 위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사무실을 두 배 이상 확장하고 연구인력도 올 연말 기준 40여명으로 약 두 배 이상 늘린다.

메르세데스-벤츠 본사의 마르쿠스 슈페 승용부문 생산 및 공급망 관리 총괄 임원은 “세계에서 기술적으로 가장 발전한 국가 중 하나인 한국에서 더욱 활발히

크리스티안 디크만 메르세데스-벤츠 R&D 코리아 센터 상무와 진성준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디미트리 리스 실라키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대표이사 사장,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마르쿠스 슈페 메르세데스-벤츠 본사 승용부문 생산 및 공급망 관리 총괄 임원, 비아트 비르너 주한독일대리대사(왼쪽부터)가 7일 서울스퀘어 빌딩에서 개최된 메르세데스-벤츠 R&D코리아 센터 확장 개소식에 참여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이번 서울에 위치한 R&D 센터 확장 개소를 적시적소에 진행하게 됐으며 새로운 R&D 센터는 한국 사회의 혁신과 진보를 거듭하고 있는 기술 개발의 시너지를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향후 R&D 코리아 센터는 자율주행 기술을 위한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 및 인포테인먼트, 내비게이션 시스템 등 커넥티드 카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개발 허브로서 역할을 보다 확대해 갈

예정이다. 부품 조달에 있어서도 메르세데스-벤츠에 한국은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 모기업인 님러는 이미 가전 및 자동차 분야에 경쟁력, 최고의 기술력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수많은 한국 업체와 협력을 맺고 차량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용 소프트웨어, 지도 데이터 및 전기차 배터리 등 주요 부품을 공급받아 오고 있다.

지난해 기준 부품 조달 신규 계약 규모는 약 2조원에 이르며 이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양성운 기자

## “AI시대, 보안과 함께 윤리 강조돼야”

MS '퓨처 나우' AI 컨퍼런스 사티아 나델라 CEO 기조연설



퓨처 나우 AI 컨퍼런스에서 사티아 나델라(Satya Nadella)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한국마이크로소프트가 '퓨처 나우' 인공지능(AI) 컨퍼런스에서 AI 기술로 창출되는 비즈니스 기회와 이로 인해 동반되는 책임에 대한 AI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7일 서울 흥은동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는 국내외 AI 전문가를 비롯한 고객사 및 관계자 등 1500명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특히 AI 기술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가 아닌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맞췄다.

한국을 두 번째로 방문한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MS) CEO가 퓨처 나우 AI 컨퍼런스의 기조연설자로 나섰다. 나델라 CEO는 “트랜스포메이션 테크놀로지 도입을 위해서는 모든 기업들이 디지털 기업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프라이버시, 사이버 보안과 함께 윤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나델라 CEO는 “마이크로소프트는 한국의 모든 조직과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울 뿐 아니라, 한국을 포함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밝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델라 CEO는 이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 양사 간 사업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 컴투스, 신작 부재로 3분기 매출 4.7% ↓

해외 매출은 15분기 연속 80%대 인기게임 IP강화, 신작 출시 속도



모바일게임사 컴투스가 신작 부재로 3·4분기 다소 부진한 성적을 보였다.

컴투스는 7일 실적발표를 통해 2018년 3분기 매출 1198억원, 영업이익 380억원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4.7%, 영업이익은 23.3% 줄어든 수치다.

다만 해외 매출의 경우 견고한 입지를 보였다. 컴투스는 3분기 매출 중 83%에 해당하는 994억원을 해외에서 달성하며 15분기 연속 해외매출 80%를 넘어섰다. 특히 북미, 유럽 시장의 매출 비중이 50%

를 기록했다.

컴투스는 자사 인기 게임 지식재산권(IP)을 강화하고, 다양한 장르의 기대 신작을 통해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가속화해 나갈 예정이다.

'서머너즈 워'는 글로벌 e스포츠대회(SWC2018)와 전략적 업데이트 및 다양한 글로벌 프로모션 등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스카이버운드 엔터테인먼트, 편코 등과 같은 글로벌 파트너사들과 함께하는 애니메이션, 코믹스, 머천다이징 등의

IP확장을 통해 '서머너즈 워' 브랜드를 강화시켜 나간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액티비전의 대작 IP를 활용해 제작 중인 '스카이랜더스 링 오브 히어로즈'는 글로벌 사전 예약을 시작했으며, 연내 출시를 진행할 계획이다.

컴투스 측은 이날 진행한 실적발표 컨퍼런스 콜을 통해 “스카이랜더스 링 오브 히어로즈는 12월 중순 캐나다와 호주에서 선로딩한 후 권역별로 순차적으로 출시할 것”이라며 “게임은 글로벌 원블리지만 서버 운영은 권역별로 다르게 해 해당 권역의 성장을 노리는 전략이다”라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KB 금융그룹

보여줄게!  
KB만의 디지털 금융

# No.1 DIGITAL 은행

PAPERLESS •

INNOVATION •

복잡한 서류 대신 태블릿 하나로  
종이 없는 디지털 창구

은행업무도 ATM도 한손으로 안전하게  
손바닥정맥 바이오인증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창구직원 또는 스마트고객상담부(☎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 (www.kbstar.com), KB스타뱅킹 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광고물에 대한 유효기간 2019.05.31 까지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8-1020호(2018.10.30)



하나금융투자

ELS 등 파생결합상품 4종

하나금융투자는 매력적인 쿠폰을 주는 더블한스 리자드 ELS 등 파생결합상품 총 4종을 모집한다.

홍콩지수(HSCEI), 일본지수(NIKK EI225), 유럽지수(EuroSTOXX50)를 기초자산으로 연5.01%의 쿠폰을 추구하는 '하나금융투자 ELS 9117회'를 모집한다. 만기는 3년이고 6개월마다 총 6차례의 상환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홍콩지수(HSCEI), 일본지수(NIKKEI225), 유럽지수(EuroSTOXX50)를 기초자산으로 연5.51%의 쿠폰을 추구하는 '하나금융투자 ELS 9118회'를 모집한다. 만기는 3년이고 6개월마다 총 6차례의 상환 기회가 주어진다. /김문호 기자



유안타증권

투자권유대행인 아카데미

유안타증권은 오는 12일까지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체계적인 교육과 다양한 영업 지원을 제공하는 '유안타투자권유대행인 마스터 아카데미(Master Academy)' 주니어 5기 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마스터 아카데미는 유안타증권에서 2017년부터 꾸준히 진행해온 우수 투자권유대행인 양성 프로그램이다. 주니어, 주식 마스터, 금융상품 마스터 과정으로 구성되며,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우수 투자권유대행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주니어 5기 교육 과정은 13일부터 2주간 총 4회에 걸쳐 교육이 진행된다. 실제 투자권유대행인 활동 과정에 부합하는 업무 지식을 중점적으로 다뤄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수강료는 무료다. /손영지 기자

하이투자증권

연 6.2% ELS 200억 공모

하이투자증권은 오는 9일 오후 1시가지 추가연계증권(ELS) 1종을 총 200억 원 규모로 공모한다.

'HI ELS 1619호'는 코스피200(KOSPI200) 지수, 홍콩항셱중국기업(HSCEI) 지수, 유로스톡스50(EUROSTOXX5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6개월 단위 조기상환형 ELS로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증가가 최초기준가격의 90%(6개월), 85%(12개월), 80%(18개월), 75%(24개월), 70%(30개월), 65%(36개월) 이상이면 최대 18.6%(연 6.2%)의 수익을 지급한다. 상품의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 이상 10만원 단위이다. /손영지 기자

# 두 달 새 6곳 철회... 싸늘해진 IPO 시장

(기업공개)

신규 코스피 공모 6552억 불과  
코스닥 공모 전년비 3분의1 수준

국내 기업공개(IPO) 시장 분위기가 팽팽 열려 붙었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는 중대형급 기업들의 상장이 줄줄이 철회되는 가운데 코스닥시장은 규모가 작은 기업 위주로 상장이 이뤄지고 있다.

양(量)은 물론 질(質)적인 측면에서도 IPO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것. 투자은행(IB) 업계는 증시 부진으로 적정한 공모가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당분간 IPO 시장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기업가치 인정 못받아" 잇단 '상장철회'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두 달 새 IPO를 철회한 곳은 6곳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부터 카카오게임즈, HDC아이서비스, 프라코, 아시아신텍, 드림텍, 베트남CGV 등이 같은 이유로 코스피 상장을 포기했다.

특히 코스피 상장을 준비했던 공모 규모가 큰 기업을 중심으로 상장 철회가 집중되고 있어 IPO 시장이 싸늘하다.

먼저 지난 4월 올해 대어급 상장 공모 기대를 모았던 SK루브리컨츠가 수요 예

〈연도별 일반기업 공모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유가증권	건수	6	16	13	8	5
	공모금액 총액	34,770	24,041	42,586	44,484	6,552
코스닥	건수	66	102	67	74	52
	공모금액 총액	11,802	21,190	21,988	35,258	13,124
	시가총액	41,027	85,361	91,289	171,451	60,513

\*2018년 10월5일 기준, 2018년 코스닥 공모건수에는 스펙(SPEC)8건 포함.

/자료=한국거래소, SK증권

측 결과에서 부진한 성적을 받고 상장을 철회했다. 뒤이어 HDC아이디서비스, 프라코, 아시아신텍, 드림텍, 베트남CGV 등이 같은 이유로 코스피 상장을 포기했다.

지난 2일 상장철회를 결정한 드림텍 김학섭 대표는 "최근 불투명한 대내외 여건 상 변동성이 극심한 현재 증권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기업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려워 대표 주관회사 등의 의견을 수렴해 잔여일정을 취소했다"며 "기업공개는 내년 초에 재추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대어급을 보기 힘들다. 올해 예상 시가총액 1조원으로 코

스닥 시장의 기대주였던 카카오게임즈 역시 지난 9월 상장 작업을 중단했다. 회계감리가 지연됨에 따라 기업을 재정비하고 내년 상장을 목표로 IPO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코넥스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하려던 인카금융서비스 역시 지난달 10일 상장을 철회했다.

◆ 쪼그라든 상장규모

연말을 앞두고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은 기업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상장개수는 물론 규모는 지난해보다 상당히 부진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5일을 기준으로 올해 신규 상장한 코스피 상장사의 공모금액은

6552억원에 불과하다. 올해까지 아직 두 달여가 남은 것을 감안해도 전년 수준(4조4484억원)에는 한참 못미친다. 코스닥 역시 전년과 비교해 공모 규모는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또 지난 10월까지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완료한 법인(스팩상장 포함)은 48건이다. 현재 상장예비심사에서 승인을 받은 기업이 32곳 임을 고려해도 연내 100개사를 상장시키겠다는 금융당국의 목표 달성은 불가능해 보인다. 최근 증시 상황을 볼 때 지난해 수준(76개사 상장)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 우려가 나온다.

이 때문에 연내 상장은 물론 내년 초를 목표로 했던 기업들도 시장 상황을 주시하고 기업공개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B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공모가 산정은 동일업종 기업(피어그룹·Peer Group)의 주가 수준이 영향을 끼치는 만큼 현재와 같은 하락장에서는 만족할 만한 공모가를 받기가 어렵다"면서 "이미 공모가가 정해진 기업도 시장에서는 공모가가 다소 비싸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말했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 운용자산 1.4조... 45년간 벤처·중기에 투자한 VC

(벤처캐피탈)

IPO 간담회

아주IB투자

13~14일 청약, 21일 코스닥 상장  
9월 말 기준 28개 펀드 청산 실적

국내 최초 벤처캐피탈(VC) 기업 아주IB투자가 이달 말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다.

아주IB투자는 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13, 14일 청약을 거쳐 오는 21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74년 설립된 아주IB투자는 지난 45년간 총 1조 2000억 원의 자금을 벤처·중소·중견기업에 투자한 국내 최초, 최장 VC다. 현재 아주IB투자의 운용자산(AUM)은 1조4000억원에 이른다. 올 9월 말 기준 총 28개의 펀드 청산 실적을 보유했다.

이러한 업력을 바탕으로 아주IB투자는 연기금, 공제회 등 폭넓은 출자자(L



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지원 아주IB투자 대표이사가 회사 설명을 하고 있다. /아주IB투자

P)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물론 LP 보고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체계, 연간 600개 이상의 신규 거래(Deal)를 발굴할 수 있는 딜 소싱 DB(Deal Sourcing DB) 시스템 등을 갖췄다.

2014년 이후 100억원대의 영업이익을 꾸준히 기록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영업이익은 140억원으로 지난 해 영업이익(163억원)을 80% 이상 달성했다.

김지원 아주IB투자 대표는 "일반적으로 변동성이 큰 VC 시장 내에서 안정적

인 수익을 지속 창출한 것은 차별화된 투자 성과를 증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아주IB투자는 글로벌 시장에서 괄목할만한 투자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2010년 글로벌 화학회사 솔베이(Solvay)로부터 아시아 최초로 벤처펀드 운영사로 선정돼 투자 펀드를 운영했고, 2013년에는 국내 벤처캐피탈 최초로 글로벌 바이오 헬스케어 허브로 불리는 '보스탄'에 미국사무소를 설립하고 해외 VC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다.

이후 14개 미국 바이오테크 기업에 투자해 11개 기업을 상장시켰고, 올 9월 말 기준 미주사무소 IRR(내부수익률)은 28%에 육박한다. 이는 미 바이오테크 전문 VC 상위 25%의 평균 수익률인 21.9%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최근에는 국내 최초로 정책 기관 출자자 없이 블라인드 형태로 민간 투자자만으로 1230억 원 규모의 해외 투자 펀드 결성을 성공시켰다.

향후 아주IB투자는 미국 진출 지역을 보스턴에서 실리콘밸리로 보다 확대하여 투자 경쟁력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결성한 민간 해외 펀드에서도 한달만에 2개 기업을 나스닥에 상장시키면서 해외에서 입지를 굳히고 있다.

주당 공모회담가는 2000원~2400원으로 총 2440만주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를 통해 마련된 최대 586억원(공모가 상단 기준)의 자금은 펀드 운용 규모를 키우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오는 21일 상장 예정인 아주IB의 대표주관사는 미래에셋대우, 공동주관사는 대신증권이 맡았다. /손영지 기자

# 인천 미추홀 꿈에그린에 '메디컬 서비스'

한화건설, 총 864가구... 이달 분양  
서울여성병원 연계 검진센터 운영

한화건설은 이달 중 분양예정인 '인천 미추홀 꿈에그린'에 '서울여성병원'과 연계한 메디컬 서비스를 도입한다. 인천 미추홀 꿈에그린은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초교 부지 일대에 들어서는 주상복합으로 59~147㎡ 총 864가구로 지어진다.

7일 한화건설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 꿈에그린은 여성전문병원인 '서울여성병원'과 연계, 의료 서비스가 가능한 메

디컬 특화 단지로 선보인다. 단지 내 별도 1개동으로 조성되는 서울여성병원의 메디컬센터는 지상 3~14층 규모다. 산부인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여성외과 등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한다.

입주민 대상으로 건강검진 혜택을 제공, 사전에 건강을 체크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의료비 감면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입주민 대상으로 진료비와 입원비 등 할인 혜택이 주어져 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입주민들의 연령대에 맞게 성장 클리

닉, 성인 건강 강좌 등 건강 클리닉도 제공, 입주민들의 건강 관리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류진환 한화건설 분양소장은 "병원이 단지 내에 조성된다는 소식에 벌써부터 수요자의 문의가 늘고 있다"며 "병원은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입주민은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를 메디컬 특화단지는 고령화 시대에 맞춰 인기를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지하철 2호선 시민공원역이 단지 와 직접 연결된 '역세권' 단지로 단지 내 복합몰인 '아인에비뉴'에는 영화관, 대형서점, 카페, 레스토랑 등 편의시설이 들어선다. /이규성 기자 peace@



인천 미추홀 꿈에그린 조감도.



# 버블붕괴 서막 도래? ‘더블D’ 흑한기 대비해야

(디플레이-부채)

## 민스키 모멘트 시작되나 (버블붕괴 예고 경제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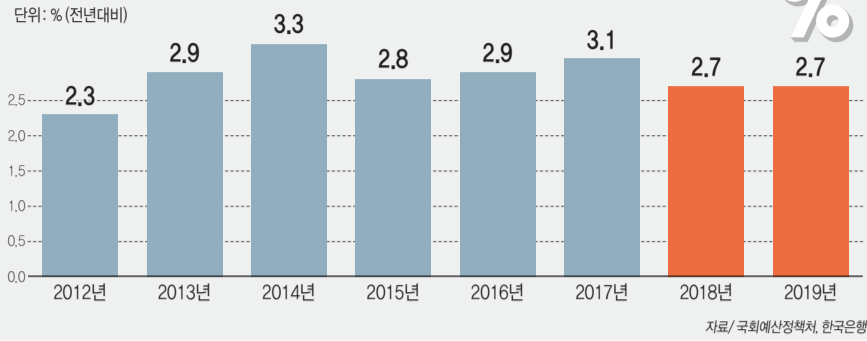
### 6 버블 취약한 韓경제

10년새 가계부채 두 배 이상 늘어  
KDI, 경기 둔화로 성장률 전망 낮춰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언제 터질 지 모르는 ‘버블’에서 시작됐다. 문지도 따지지도 않고 해준 주택담보대출로 호황을 맞은 미국의 부동산은 2007년 금리 인상을 시작으로 급격히 냉각됐다. 담보로 잡은 집값은 떨어졌고 부실채권은 쌓이기 시작했다.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면서 이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연결됐다. 부실한 금융은 큰 타격을 받았고 미국 최대 금융 보험사 중 하나인 AIG 손해보험은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 버블 붕괴의 서막이었다.

10년 전 일이지만 지금의 한국경제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 현재 버블 붕괴가 우려된다. 가계부채는 지난 10년 사이에 두 배 이상 확대됐다. 저금리 기조와 대출 규제 완화로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대출에 의지한 ‘내 집 마련’ 등이 만연해 있다. 전국 땅값은

실질 GDP 성장률 전망



자료/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국내총생산(GDP)의 3.6배까지 뛰어올랐고 넘치는 유동성으로 실제 가치 이상으로 자산가치는 부풀려졌다. 버블이 잔뜩 긴 상태라는 얘기다. 만약 이상 상황에서 거품이 터진다면 금융위기는 한순간이다. 이른바 ‘민스키 모멘트’.

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가계부채(가계신용 기준)은 1493조2000억으로 전년 대비 7.6% 증가했다. 2008년 말 723조5000억원이던 가계부채는 10년새 2배 넘게 올랐다. GDP 대비 한국의 가계부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인 70%를 웃돈다. 같은 기간 집값도 크게 뛰었다. 2008년 8월 85.4에서 8월 104로 21.7% 증가했다.

한국과 미국 간 금리 격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

준)는 올해 3월과 6월에 이어 금리를 세 번 올렸다. 연준은 오는 12월 한 차례 더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1.5%, 미국은 2.00~2.25%인데 미국이 2.5%까지 올릴 수 있다는 뜻이다. 내외금리차가 1%포인트까지 벌어지면 외국인 자금 유출은 시간문제다.

이 와중에 국내 경제는 답답하기만 하다. 수출이 양호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투자·고용·경기 지표들이 둔화 혹은 하락세를 보이는 등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 활력이 약화되는 모습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지난해 14.6% 늘었던 설비투자가 올해 1.8% 줄고 내년에는 1.3% 소폭 늘 것으로 전망됐다. 건설투자는 지난해 7.6% 증가했지

만 올해와 내년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하반기 들어 취업자 수가 증가가 큰 폭으로 축소되면서 고용시장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렇다고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올해 취업자 증가 규모는 2009년(8만7000명 감소) 이후 9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올해와 내년 실업률도 2001년(4%) 이후 가장 높은 3.5%가 될 거로 KDI는 내다봤다.

현재 한국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수출 부문에서도 반도체 등 일부 산업과 여타 산업 간의 격차가 확대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일부 취약 신흥국의 자본 이탈과 통화 가치 급락 등 경제 불안이 커지고 있다. 미·중 간 무역 분쟁이 격화로 세계 경제 성장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경제성장의 대외 의존성이 높은 한국경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최근 전개되는 일련의 대외경제여건 변화는 국내 경제성장에 대한 하방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기 둔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돼 내년에는 잠재성장률(2.7~2.8% 추정)을 밑도는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일자리 사정도 고용 참가가 빚어진 올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다.

KDI는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2.7%와 2.6%로 전망했다. 지난 5월 ‘상반기 경제 전망’ 때보다 각각 0.2%포인트, 0.1%포인트 낮췄다. 앞서 한국은행과 IMF(국제통화기금)도 올해 성장률을 종전보다 0.2%포인트씩 낮춘 2.7%, 2.8%로 각각 전망했고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했다.

일각에서는 부동산과 주가 하락이 겹친 자산 디플레이션(Deflation)과 과도한 가계부채가 폭발하는 부채(Debt) 위기가 동시에 오는 ‘더블D’를 우려하는 시각이 나온다.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우리 경제에 대한 전망은 한마디로 비관적”이라며 “이미 반락을 시작한 경기하락을 단기간에 끌어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미 때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김현욱 KDI 실장은 “소득 주도 성장의 근본 취지는 공감하지만 단기적으로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장기 효과를 기대하며 손 놓고 있지 말고 혁신 성장 측면에서 다양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 상장사 3곳 중 1곳 ‘어닝 쇼크’ 기록

114곳중 66곳 기대치 밑돌아  
어닝 서프라이즈 기업 22곳뿐

기업 실적 발표(어닝시즌)가 중간을 넘어가고 있는 가운데 올해 3분기 실적을 공시한 상장사 3곳 중 1곳은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컨센서스)를 크게 밑돌아 ‘어닝 쇼크’(실적 충격)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7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 3곳 이상의 실적 추정치가 있는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중에서 지난 4일까지 실적(연결재무제표)을 발표한 기업은 114곳이다.

이 가운데 57.9%인 66곳은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컨센서스)를 밑돌았다. 특히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에 10% 이상 미달한 ‘어닝 쇼크’(적자 확대·적자전환 포함) 기업만 37곳(32.5%)에 달했다.

발표 실적(잠정치)과 시장 전망치의 괴리율이 가장 큰 상장사 중 하나는 유한양행이다.

유한양행이 발표한 3분기 영업이익은 2억원으로 시장 기대치(262억원)보다 99.4%나 부족하다. 증권가에서는 최근 늘어난 연구개발(R&D) 비용 때문으로 보고 있다.

현대자동차 3분기 영업이익 역시 2889억원으로 시장 기대치(9251억원)를 68.8%나 하회했다. 기아차 역시 3분기 영업이익이 1173억원으로 컨센서스(3338억원)를 64.9% 밑돌았다.

자동차주의 실적 부진은 신흥국 통화 약세 영향에 리콜 비용 부담이 더해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밖에 현대위아(-64.9%), LG하우시스(-61.7%), 풍산(-61.7%), 아모레퍼시픽(-41.6%), 대교(35.8%), 포스코ICT(-35.8%), 신세계푸드(-33.3%), OCI(-33.2%), 현대건설기계(-32.9%), 나스미디어(-32.6%) 등도 영업이익 잠정치가 시장 기대치를 30% 이상 하회했다.

이에 비해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10% 이상 상회한 어닝 서프라이즈

(흑자전환 포함) 기업은 LG디스플레이(139.0%), 삼성엔지니어링(105.6%) 등 22곳(19.3%)에 그쳤다.

올해 3분기 실적이 이처럼 시장 기대에 못 미치면서 기업들의 이익 성장세가 꺾인 게 아니냐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김광현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올해 1분기와 2분기는 어닝시즌에 대한 기대치가 높지는 않았지만 하향 조정된 전망치를 비교적 충족했다”며 “그런데 이번 3분기에는 발표되는 실적이 낮아진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실적발표를 남겨둔 기업들이 전망치 대비 8% 이상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하지 못한다면 작년 동기 대비 분기 이익 증가율이 한 자릿수대로 떨어지는데, 이는 2016년 1분기(8.7%) 이후 처음”이라며 “이런 추세라면 4분기 이익 증가율도 0%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어 이익 사이클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

## 안전자산 선호현상... 10월 채권값 급등

금리 대폭 하락·외국인 자금 순유출세

지난달 채권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채권값 상승)했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나타난 영향이다.

외국인 자금은 두 달째 순유출세다. 그러나 이는 만기상환 물량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10월 중 채권 순매수액은 전월보다 56% 늘었으며 외국인의 채권 보유 잔고도 지난달 중순을 저점으로 다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금융투자협회가 4일 발표한 ‘10월 장외채권시장 동향’에 따르면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지난달 말 연 1.939%로 한 달 전보다 6.6bp(1bp=0.01%포인트) 하락했다. 5년물과 10년물 금리도 10bp 이상 하락했고, 20~50년 장기물은 14.9~16.5bp 내렸다. 금투협 관계자는 “금통위의 금리동결과 성장률 전망치 하향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 글로벌 주식 하락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현상 등으로 금리가 큰 폭 하락하는 강세장을 연출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10월 말 기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채권보유 잔고는 111조8000억원으로 전월(112조1000억원) 대비 2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채권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은 9월에 이어 두 달째

순유출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는 채권 만기상환액이 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동락대신증권 연구원은 “9월과 10월 만기상환 규모가 커서 잔고가 줄었으나 실제로는 외국인 자금의 유입세가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외국인은 해당기간 국채를 6000억 원 팔고, 통안채를 3조3000억원 순매수하면서 총 2조7000억원의 채권을 순매수했다. 작년 12월부터 이어진 외국인의 한국 채권 순매수 행진이 11개월째 이어졌다.

발행 시장에서는 특수채 발행이 줄었으나 금융채, 국채, 통안채, 회사채 등은 늘었다. 이에 따라 순발행액은 12조원 증가해 채권 잔액은 사상 최고치인 1915조원을 기록했다. 특히 회사채가 증가한 것은 사모를 통한 자금조달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A등급 회사채 발행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A등급 이상의 회사채 발행은 3조4850억원을 기록했다.

회사채 수요예측금액은 금리인상 전 우량기업의 자금조달 증가로 전년 동월 대비 54.6%포인트 증가한 9조6980억원(38건)으로 집계됐다. 장외채권 거래량은 발행증가와 금리하락에 따른 거래증가로 전월 대비 77조원 증가한 419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손영지 기자

## LH 등 공기업 합동 해외체험형 청년인턴 선발

26명 채용... 번역·기술지원 등 업무  
최종합격자 발표 후 6개월간 현지 파견

LH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함께 공기업 최초로 해외 인프라 체험형 청년인턴을 선발한다고 7일 밝혔다.

채용인원은 26명이다. LH 등 4개 인프라 공기업이 진출해 있는 13개 국가 해외 사업 현장에 파견해 자료조사, 번역,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지원자격은 만 18~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최소 어학성적 기준을 충족하고 해외 체류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다. 학력·성별 제한은 없다.

채용절차는 14~20일까지 지원서 접수,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을 거쳐 12월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이번 채용은 NCS를 기반으로 한 직무역량 평가를 통해 선발한다. 따라서 전 과정에서 일체 인적사항을 제출받지 않으므로 입사지원서 작성시 학교명, 출신지, 가족관계 등을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서류전형에서는 자기소개서가 결정적인 판단기준이 되는 만큼 공고문에 제시된 직무설명을 꼼꼼히 살핀 후 작성, 해외에서 근무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면접 시 외국어능력에 대한 평가도 실시한다.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1개월간 합동 교육 및 공기업별 개별교육을 실시한 후 6개월간 해외 인프라사업 현지에 파견하며, 왕복항공료 및 주거비용을 별도 지원한다.

각 전형단계별 평가방법 및 기준, 모집분야별 인원 등 자세한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www.jpss.or.kr/wifi)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규성 기자 peace@

## 부동산신탁업 임원 요건, 본인가에서 심사

금융당국이 부동산신탁업의 신규인가를 심사할 때 임원자격 요건은 본인가에서 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이번 부동산신탁업 신규인가에 다수 업체의 신청이 예상됨에 따라 임원 자격요건은 예비인가가 아닌 본인가 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당초 공개한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신청서에는 임원 등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임원,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의 인적사항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임원 등의 자격요건이 별도 배정 없이 법령 등의 준수 여부를 심사하는 항목인 점과 다수의 예비인가 신청에 따른 임원 등의 인력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 방사청이 장비도입처 변경, 납기지체뎀 방산업체에 벌금

## 위기의 방위산업

(中) 책임만 지고 병드는 방산업체

무리한 기술 변경 요구에 늦었는데 R&D 사업비의 2배 벌금으로 물어 혹독한 감사에 연구원 목숨 끊기도

“방위산업 비리는 없다. 다만, 방산 시스템의 결함이 있을 뿐” 다수의 전문가들은 방산비리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은 방산비리로 구속된 책임자들의 약 50%가 무죄판결을 받는 현실에 분개한다. 적기에 전력화가 실패하고 무기의 성능이 떨어지는데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누구의 문제일까?

◆정부기관은 자기자리만, 책임은 업체가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7일 본지와와의 인터뷰에서 “방산비리 수사의 피해자는 많은데 가해자는 없다고 말한다”며 “국내 방산업체는 원가 검증까지 받아가며 감사와 관리의 대상이 돼 있다. 반면 대부분의 비리가 해외 무기 도입에서 발생하는데 수사는 국내 방산업체를 겨냥



한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감사·감독 공무원 숫자가 늘면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비리를 만들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육군의 최신 전차인 K-2(흑표) 전차를 생산하는 현대로템은 체계통합업체라는 이유로 지체상금을 물어야 할 상황이다.

방위사업청은 흑표전차 전력화 2차분을 놓고 핵심장비인 ‘파워팩(엔진과 변속기 등)’을 당초 계획된 독일제에서 국산으로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국산 파워팩

이 결함을 보여 흑표 전차의 2차 전력화는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방위사업청은 현행 국가를 상대하는 계약법(국계약법)과 판례를 들어 체계통합 업체인 현대로템에게 예정된 납기를 지키지 못했을 때 내야 하는 지체상금을 부과했다.

현대로템이 방사청에 내야할 지체상금은 1700여 정도로 추산된다. 본지 확인 결과 현대로템 창원 공장에는 엔진과 변속기만 장착하면 출고가 가능한 흑표 전차가 59대가 있다.

지체상금과 관련해 현대 로템측에 문의했지만, 현대 로템 측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반면, 방사청은 관계 법령 등 관례상 체계통합 업체인 현대 로템에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2차 수정계약서에 지체상금 면제된 제출을 넣는 것에 양측이 합의를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방사청 입장처럼 관례대로라면, 현대 로템이 지체상금을 면제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방산업 현실은 보지않고 실적에만 급급  
상한선 없는 지체상금뿐만 아니라, 감사원의 무리한 감사와 정부의 무리한 요구 변경도 국내 방산업체가 떠안은 ‘원죄’다.

2015년 대전차 무기 현공을 개발한 LG 넥스윈의 연구원 3명은 방산비리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심에서 모두 무죄로 판결받았다.

하지만 그 중 한 명은 혹독한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의 수사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감사원은 개발 현장의 현실은 도외시한 채, 하청업체의 사소한 실수를 이

유로 방산비리로 몰아갔다. 짧은 개발기간 동안 빠른 성과를 요구하는 국내 방위사업 특성상, 하청업체가 기간을 맞추기 위해 재할용을 금지한 발사관을 재할용했던 것이다.

발사관의 재할용이 개발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었고, 하청업체도 원가가 절감된 분만큼을 산정해 납품금액을 받았다. 그런데 감사원은 이를 납품원가를 부풀렸다고 방산비리로 몰아갔던 것이다.

최근 LIG 넥스윈은 다대역다기능무전기(TMMR) 사업을 진행하면서 수십 차례 전문가 기술 검토 및 군사요구도(ROC) 변경을 요구받았다. 그 결과 2016년 완료된 사업은 2년 가까이 지연됐다.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요청에 따라 왔던 것인데, ADD는 LIG 넥스윈의 소명절차도 없이 연구개발 사업비의 2배에 달하는 666억원의 지체상금을 부과했다.

정부 기관의 정책은 엉망인데, 관례에 따라 책임만 지는 방산업체들의 피해사례는 이 밖에도 무수하다. 때문에 방산업 관계자들 사이에선 “법만 아니면 방산 따위 때려치고 싶다”는 말들이 나돌고 있다. /문형철 기자 captain@metroseoul.co.kr

## LG화학 비화학사업 호조 ‘선방’

## 롯데케미칼 순수화학 정조준 ‘주춤’

### 희비 엇갈린 화학업계 ‘빅2’

국내 화학업체 ‘빅2’로 우뚝선 롯데케미칼과 LG화학의 극명하게 갈린 성장 전략이 눈길을 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은 순수화학 사업에 집중하는 반면, LG화학은 유화사업 외에도 전기차 배터리 사업, 농업·바이오 사업 등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다.

롯데케미칼의 경우 순수화학과 관련한 사업 비중이 크다. 대표적으로 여수공장과 미국 루이지애나 에탄올 크래커 공장을 꼽을 수 있다.

현재 롯데케미칼은 2500억원을 투입해 여수 NCC 증설을 추진하는 동시에 미국에도 에탄올 분해 시설을 짓는 중이다. 오는 2021년까지 화학부문 투자액만 2조2000억원에 달한다.

반면 LG화학은 비화학사업에서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특히 전기차동차가 호황을 누리면서 전지 사업이 눈에 띄게 성장하는 양상이다.

최근 LG화학은 급성장하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선점하고자 중국 남경에 전기차 배터리 2공장을 짓기 시작했다. 해당 공장은 6만평 부지에 지상 3층으로 지어진다. LG화학은 공장에 오는 2023년까지 2조1000억원을 단계적으로 투자, 고성능 전기차 배터리 50만대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이로써 LG화학은 국내 공장을 포함해 미국과 폴란드, 중국까지 총 5개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 체제를 갖췄다.

양사의 상반된 사업 결과 LG화학은 롯데케미칼과의 영업이익 격차를

더 늘리고 있다.

실제 올 3분기 LG화학은 6024억원, 롯데케미칼은 5036억원의 영업이익을 각각 기록했다. 지난해 3분기 롯데케미칼이 LG화학을 제치고 업계 1위 자리를 차지하면서 1015억원의 영업이익 더 거뒀지만 올해 2분기부터 LG화학이 비화학사업 호조에 힘입어 롯데케미칼을 추월하기 시작한 것이다.

4분기 또한 3분기와 별반 다르지 않은 실적이 전망된다. 우선 지속적인 국제유가 상승으로 원료가격 또한 오르면서 화학업계의 불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희철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롯데케미칼은 4분기 무역분쟁 우려 심화에 따른 전방업체 수요 부진 영향으로 수익성이 추가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내년부터는 신증설된 공장들로 인해 상대적으로 견조한 실적이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LG화학도 3분기와 크게 다르지 않은 실적이 전망되고 있다. 기초소재 부문에서 손해가 지속되는 반면 전지 매출이 확대되면서 불황을 만회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조현렬 삼성증권 연구원은 “LG화학의 영업이익 감소는 기초소재 부문에 기인한다”면서도 “정보전자소재 부문이 흑자로 전환하고 전지부문이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기초소재 부진을 만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4분기에는 여수 NCC 정기보수 및 스프레드 추가약제로 감익이 예상된다”면서도 “자동차 전지 손익분기점 달성으로 추가 성장에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왼쪽부터)현대뷰 메이크업 시연 서비스, 현대IT&E VR 시나미, 현대백화점면세점 그랜드 오픈.

/손진영 기자 son@현대백화점그룹

## 영토 넓히는 정지선... 현대백 신사업 가속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속원사업 면세점 도전장... ‘순항’  
리테일테크 도입 소비자 호응 ↑  
한화L&C 인수 리빙사업군 강화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신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리테일테크’를 도입하는가 하면, 앞서 1일에는 정 회장의 속원사업인 현대백화점면세점을 오픈했다. 이밖에 그룹 내 렌탈 사업과 가구 사업도 확장하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초 조직 개편을 통해 ‘미래사업본부’를 신설했다.

미래사업본부는 미래 소비 트렌드를 기반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 전략을 수립해 중장기적인 성장을 모색한다. ▲미래MD 및 R&D 담당 ▲콘텐츠 개발 담당 ▲신규점 프로젝트 등 3개 조직으로 구성됐으며, 이 조직들은 톱니바퀴처럼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협력 체제로 운영된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져 기존 사업 구조나 경쟁력으로는 미래 성장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미래사업본부 같은 핵심 조직이 필요했다”고 조직 탄생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현대백화점은 미래사업본부를 통해 미래 소비 트렌드를 예측하고,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유통에 정보통신기술(IC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T)을 접목하는 ‘리테일테크(Retailtech)’ 실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지난 5월 중국 뷰티 관련 스마트폰 앱(어플) 개발 전문기업인 ‘메이투’와 제휴를 맺고, 공식 온라인 쇼핑몰 ‘더현대닷컴’에 가상 메이크업 서비스를 도입했다. 온라인몰에 증강현실을 이용한 메이크업 시연 서비스를 도입한 것은 현대백화점이 처음이다.

‘가상 메이크업 서비스’ 도입으로 고객들은 자신의 피부톤에 맞는 화장품을 찾기 위해 오프라인 매장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더현대닷컴 앱을 통해서 간편하게 제품을 고를 수 있게 됐다.

IT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들은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몰이 중이다. 더현대닷컴이 2016년 오픈한 ‘VR스토어’는 오픈 당시 이용 고객이 3000명 수준이었지만, 최근 1만명을 돌파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룹 내 IT 전문 기업인 현대IT&E는 연내 오픈 예정인 국내 최대 규모의 VR 테마파크 ‘VR 스테이

션’에 최고급 사양의 ‘VR 시나미’를 운영한다.

‘VR 시나미’는 16석 규모로 VR과 4D X를 접목시킨 VR 전용 영화관으로, 삼성전자에서 출시 예정인 VR 전용 헤드셋 기기 ‘오딧세이 플러스(+)’와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4D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는 CJ의 4DPLEX가 개발한 ‘4DX 스웨이앤트위스트(Sway&Twist) 모션체어’를 VR 영화관에 최초로 적용한다.

1일 오픈한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순항 중이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8~10층까지 총 3개층에 특면적 기준 1만 4250㎡(약 4311평) 규모로 들어섰다. 인지도 높은 국내외 브랜드 420여개가 입점했으며, 무엇보다 9층 ‘뷰티&패션관’에는 차별화된 디지털 미디어 체험 공간이 있어 고객의 관심을 끈다. 고객의 피부타입에 따라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볼 수 있는 ‘LG생활건강 통합관’, 슈에무라·랑콤 등 로레알그룹의 메이크업 브랜드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메이크업 스튜디오’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현대백화점그룹은 계열사인 현대홈쇼핑을 통해 한화L&C 지분 100%를 인수, 건자재 시장으로 사업영토를 넓히며 리빙사업군을 강화했다.

사측은 이번 합병을 통해 유통(백화점·홈쇼핑·이몰렛·면세점)과 패션(한섬·현대G&F·한섬글로벌) 부문에 이어 리빙·인테리어 부문을 그룹의 3대 핵심사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신현선 기자 tree6834@

**Wenger®**  
**Swiss Made**  
**Watches**

**125** SINCE 1893  
 A SWISS COMPANY



**WENGER®**

wenger.co.kr

# 북방경제위장에 골드만 출신... “경협, 실질성과 내라”

(권구훈 이코노미스트)

권구훈 북방경제협력위원장 위촉  
13~18일 아세안 정상회의 등 참석  
아세안 교역액 1600억불 상회 전망  
2020년 베트남 수출액 EU 넘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이 서서히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공석이었던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을 새로 위촉했고, 선포 1년이 지나고 있는 신남방정책은 가시적인 성과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오는 13~18일 참석하는 아세안(ASEAN) 관련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통해 이들 정책에 더욱 가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 ◆권구훈 신임 북방위 위원장 위촉

문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권구훈 신임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권 신임 위원장은 골드만삭스 아시아 담당 선임 이코노미스트 출신으로 관련직을 유지하면서 북방위 위원장직도 겸할 것으로 알려졌다.

권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증권·투자 업무를 하는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직을 유지하면서 대북경협 문제를 관장하는 게 부적절해 보인다”는 지적에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총무실에서 권구훈 신임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위촉장 수여식을 마치고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답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지만 한반도 비핵화, 평화프로세스가 진행되고 동시에 남북관계가 좋아져서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임청 바빠지고 이해 상충 문제를 제기할 정도가 되면 저도 (검정 문제에 대해)생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권 위원장은 “우리 회사(골드만삭스)도 150년 된 회사라 그렇게 되면(검정 때문에 이해 상충 문제가 불거지면) 회사가 힘들어진다는 걸 잘 안다”면서 “회사에서도 이 문제를 한 달 정도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직접 추천해 발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위촉장 수여식 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개인적 인연이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여름휴가 때 ‘명견만리’라는 책을 읽었는데 책 말고 TV에서도 직접 명견만리를 보시고 권 위원장의 강연에 감명을 받아 기억하고 있다”가 인사수석실에 추천했고 검증을 거쳤다”고 소개했다.

## ◆1년된 신남방정책, 교역 증가 등 성과 가시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김현철 위원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정부가 신남방정책을 천명한 지 1년이 지났다. 1년간 신남방정책의 성과가 나타나 소개하겠다”면서 “한·아세안 교역액이 증가하면서 올해 160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신남방정책의 목표인 2020년 2000억 달러 교역 규모 달성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올해 10월까지 한·아세안 교역액은 1321억 달러로, 작년 동기대비 7.6% 증가했다”며 “특히 베트남은 단일 국가 기준으로 중국·미국 다음으로 제3위 수출국으로 자리를 굳히고 있다”고 전했다.

신남방특위는 앞서 별도로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올해 대 베트남 수출 규모가 10월까지 400억 달러를 달성했다면서, 2020년에는 대 베트남 수출이 처음으로 유럽연합(EU) 지역 전체(영국 포함 28개국)에 대한 수출액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또 “올해 우리의 신남방지역 해외 인프라 건설 수주량이 중동을 넘어섰다. 신남방 지역이 우리 최대의 건설 수주처로 부상했다”며 “전 세계 자동차업계 불황 속에서도 인도 시장에서 우리 자동차가 선전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한류 열풍을 바탕으로 우리의 중소·중견기업 비즈니스가 아세안의 다양한 소비시장에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아세안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자랑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신남방 국가 정상들의 마음을 얻는 감성외교를 보여줬다. 아세안 재해 때 우리 쌀을 나눔으로써 아세안과의 상생의 공동체를 한편 문 대통령은 오는 13~16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제21차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제13차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참석하는 데 이어 17~18일에는 파푸아뉴기니를 방문해 제26차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들 일정 기간 문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양자 회담을 한다. 스톡홀름 호주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양자 회담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中 물류업계

### 택배보관함으로

### 전자상거래 ‘쑥’

최근 중국 물류업계가 스마트택배 보관함을 적극 활용해 전자상거래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한국무역협회 청두 지부가 발표한 ‘최근 중국 스마트택배 보관함 시장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중국 택배산업의 시장규모는 4957억 위안을 기록, 전년 대비 24.7%의 빠른 성장을 보였다.

같은 기간 양적으로도 401억 건의 물량을 기록했다. 하루에도 1억 건 이상의 택배가 배송되고 있는 셈이다. 오는 2020년까지 중국의 택배물량은 연간 700억 건까지 늘어날 전망이다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스마트택배 보관함은 사물인터넷(IoT)과 모바일 결제를 기반으로 택배 배송원 및 수령인이 택배물품의 보관, 수령 및 발송을 위해 활용하는 보관함이다.

배송원이 택배물품을 스캔해 보관함에 넣으면 수령인에게 1회성 비밀번호에 해당하는 인증번호가 발송, 수령인이 편한 시간에 보관함을 방문하여 택배를 찾는 시스템이다. 수령인이 보관함에서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해 택배물품을 수령하면 물류업체에 수령 사실이 실시간으로 통보된다.

2017년 기준 중국의 스마트택배보관함은 총 27만 곳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택배업의 빠른 성장에 힘입어 2020년까지는 125만 곳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중국의 스마트택배 보관함은 우편우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인 국가우정국과 알리바바 산하의 물류기업, 주요 물류 대기업들이 출자로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 불닭볶음면 등 韓 인기식품, 中 역직구물까지 영토 확장

### 이마트·CJ제일제당·올리브영 입점 삼양·농심·동원 등은 직영판매 병행

중국 온라인 식품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한국의 인기 식품들이 중국 내 역직구물 영토를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중국 역직구물 시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2위 역직구물인 텐마오국제에서는 지난 4월 기준 500여 개 한국 식품이 판매되고 있었으며, 이들의 거래량 순위는 삼양 불닭볶음면, 노브랜드 치즈볼, 구일 김, 전남 유자차, 농심 김치사발면 등 순이었다.

주요 품목은 인스턴트 식품과 과자, 사탕류 등 간식, 그리고 쌀과자 등 곡물 가공 식품, 음료 분말 등으로 분석됐다.

이마트와 CJ제일제당, 올리브영 등

한국 업체들이 플래그십 스토어를 여는 식으로 입점했고, 불닭볶음면과 김 등 인기제품은 해당 물의 직영 판매도 병행했다.

업계 3위 역직구물인 징둥국제에서는 4월 기준 85개 한국 식품이 판매 중으로, 인스턴트 식품과 초콜릿, 견과류, 커피 등이 주요 품목으로 꼽혔다.

이들 중 불닭볶음면, 허니버터아몬드, 유자차 등은 구매 후기가 1만 개가 넘는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삼양과 농심, 청정원, 오투기, 동원, 이마트, 롯데, 빙그레 등 한국 업체들은 이곳에서도 입점 및 직영 판매를 병행해 시장을 공략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샤오홍수에서는 야외활동 중 즐길 수 있는 한국산 레저 식품, 음료 분말, 인스턴트 식품 등이 판매되고 있었다.

구매자 평가 수가 많은 인기 상품으로

는 레저 식품 중 허니버터아몬드, 마켓오리얼브라우니, 인스턴트 식품 중 불닭볶음면, 허니치즈볶음면 등이 꼽혔다.

양마터우에서는 인기상품 톱 20 중 한독의 숙취해소제 레디큐(5위), 해태 떡볶이과자(6위), 농심 신라면(13위), 삼양 자장면(17위) 등 한국 제품이 4종이나 포함됐다.

aT는 중국에서 역직구물을 통한 식품 수입이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조사업체 아이리서치와 중량위 마이왕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동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소비자들의 수입식품 구매경로는 ‘주로 온라인’이라는 답이 58%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이 26%였으며 ‘주로 오프라인’은 16%에 그쳤다.

역직구물에서 우리나라 제품의 브랜드 선호도 및 매출도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웨이핀국제에의 제품 원산지 국가별 선호도는 미국과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가 3위였다.

웨이핀국제 소비자들의 선호 브랜드 중에는 정관장과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 우리나라 브랜드가 다수 포함됐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 손경식 회장 “건실한 조직·회계로 ‘뉴 경총’ 만든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7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180회 이사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투명한 회계, 예산 처리 등으로 구설수를 겪었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손경식 회장이 조직을 건실하게 탈바꿈하기 위한 ‘뉴 경총’을 선언했다.

7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180회 경총 이사회를 개최하고 규제 개혁과 고비용·저생산성 산업구조 혁신, 노조의 과도한 임금 인상 요구와 노동쟁의 자제를 제시했다.

손 회장은 “그동안 제기된 회계와 예산 관련 문제에 대해 외부 회계기관의 컨설팅을 통해 진단을 받았다”며 “고용노동부

의 특별지도 점검 결과도 통보 받았기 때문에 지적된 사항들을 철저히 시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손 회장은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정부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세율을 경쟁국 수준으로 인하고 연구·개발(R&D)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면서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정책들을 최소화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배려가 요청된다”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부담이 높은 가업 상속세제도 대폭 완화가 필요하며 신산업 발굴과 4차 산업혁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향후 경총의 행보와 관련해서는 “경총은 앞으로 공식 출범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협력적 노사관계 조성을 위한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여·야·정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입법에 합의한 것은 다행스러운 결정”이라며 “하지만 주 5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은 여전히 기업들에 매우 큰 부담”이라고 덧붙였다. /김유진 기자 ujim6326@

‘軍 복무’ 대한민국 남자들의 암흑기?

# 합리적 처우, 급여 현실화 등 ‘인권개선’으로 인식 바뀌어야

**양심적 병역거부논란**  
〈下〉 군대의 조건

#1. 윤승주 일병은 2014년 3월부터 선임 4명의 지속적인 학대와 폭행에 시달리다 그해 4월 7일 숨을 거뒀다. 전날도 계속된 폭력에 오줌 흘린 채 정신을 잃은 윤 일병은 “피병 부리지 말라”는 말과 함께 가슴을 걷어차였다. 주범 이모 병장은 2016년 대법원에서 징역 40년을 확정받았다. 국가보훈처는 당초 윤 일병을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 균경)로 의결했다가, 지난 1월 국가유공자로 인정했다.

#2. 지난해 7월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박찬주 전 육군 제2작전사령부 대장 부부의 공관병이 노예생활을 했었다고 밝혔다. 박 전 대장 부부의 공관병과 조리병, 보좌관 등은 120평에 이르는 공관에서 조리과 빨래, 다림질, 텃밭 가꾸기, 옷 관리, 화장실 청소 등 부당한 잡무를 맡았다는 제보였다. 박 전 대장의 부인은 공관병에게 폭언은 물론 썩은 과일을 집어던지고, 일을 못한다며 베란다에 40분간 가뒀으며, 남편의 육군참모차장 재임 시절 공관병들에게 전자발찌를 채워 수시로 호출하는 등 노예로 부렸다던 증언이 쏟아졌다. 이에 수사에 나선던 군 검찰이 사건을 민간검찰로 이첩해, 현재 수원지검이 전면 재수사중이다.

국방부 ‘국방개혁 2.0’ 발표  
영창제도 폐지 등 사법개혁 약속  
의무시설 개선·군의관 보강으로  
‘군병원=불신’ 과제 해소해야

현역병의 억울한 죽음 방지와 급여 현실화, 억압적이지 않은 병영환경 등이 ‘믿고 갈 수 있는 군대’의 조건으로 거론된다.

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2013년~2017년 13만334건의 인권침해 상담 중 4158건이 군 관련 내용이었다. 2013년 337건에서 이듬해 502건으로 늘어난 상담은 2015년 350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403건으로 다시 늘었다.

유형별로는 같은 기간 ‘생명권 침해’가 240건이었다. ‘폭행, 가혹행위/과도한 장구사용’은 748건에 달했다. ‘폭언, 욕설 등 인격권 침해’ 역시 614건으로 적지 않았다. 다만 생명권 침해는 2013년 21건에서 지난해 8건으로 줄었다. 폭행의 경우 36건에서 25건으로 줄었지만 폭언은 55건에서 99건으로 꺾중 뛰었다.

이 때문에 군 인권에 대한 구조적 접근과 신속한 사건 처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인권위는 지난 7월 개정된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침해조사국에 군인권조사과를 신설했다. 군인권조사과장은 군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연구, 개선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할 수 있다. 군 교도소 방문조사도 할 수 있다.

◆국방부 ‘투명성 강화’ 약속  
국방부도 지난 8월 ‘국방개혁 2.0’을 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논란에 앞서, 정부가 현역병에 대한 인권 보호 노력으로 ‘믿을 수 있는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투이미지

표하고 인권보호를 위한 군 사법 개혁을 약속했다. 재판 없는 처벌인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항소심 군사법원도 없애 서울고법에 사건을 이관한다. 최종 재판 결과를 감경할 수 있는 관할관의 ‘확인조치권’도 없애기로 했다. 인권보호관 신설과 군 범죄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 도입도 약속했다. 각 부대 검찰부를 각군 참모총장 소속의 검찰단으로 통합해, 수사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병사들 사이에 만연한 군병원 불신도 과제다. 2016년 8월 청평 국군병원 소속 A 군의관은 목디스크 환자인 김모 병장에게 수술용 조영제 대신 소독용 에탄올을 투여해 왼팔 신경을 마비시켰다. 이를 두고 대학병원 수련의를 거쳐 투입된 단기 군의관, 이를 보조하는 의무병이 응급상황 대처는 물론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국방부는 향후 민간과의 의료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전방지역은 사단급 이하 부대의 노후된 의무시설 개선과 군의관·응급구조사 보강, 의무후송 전용 헬기 8대 배치 등을 약속했다.

터무니없이 낮은 병사 봉급 문제는 차츰 해결되는 모양새다. 국방부는 올해부터 병장 월급을 기존 21만6000원에서 40만5700원으로 인상했다. 2022년까지 67만6000원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잡질’로 통하는 제조작업과 병사 생활 공간 이외 구역 청소를 민간에 맡기고, 일과 후 외출과 휴대폰 허용도 추진한다. 2019년 전방 GOP 지역과 해·공군 전투부대, 2021년 전군 후방과 지원부대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믿고 가는 군대 조건은 ‘인권개선’  
하지만 최근 국군 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5·18 당시 계엄군의 성폭력 등 과오가 부각돼, 당분간 군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쉽게 바뀌지는 않을 전망

이다. 당장 현역병이 직업군인에게 느끼는 박탈감부터 이해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군필자인 임기혁(26)씨는 “선택지 없이 끌려가 24시간 복무체제 속에 사는데도 편의점보다 월급이 적다”며 “부사관과 장교들에게 병사처럼 추가 근무하면서 초과수당 받지 말라고 하면 사직서 낸다고 난리칠 것”이라고 말했다.

임씨는 “직업군인 상당수가 카카오 게임 상위권에 올라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병사들의 불만이 가득한데 전투력이 유지되겠느냐.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믿고 갈 수 있는 군대의 조건은 합리적인 처우를 통한 인권 개선으로 귀결된다. 부대 내 사건 발생 시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병사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군인권센터 방혜림 상담지원 간사는 “(군대 내) 사건 발생 시 즉각 신고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이미 마련돼 있지만, 그대로 하지 않아 문제”라며 “군인복무기본법과 부대관리 훈령에 따라, 병영악습이 일어났을 때 즉각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폐쇄적인 환경에 놓인 병사들에게 일정부분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방 간사는 “일부 시범 운용 중인 스마트폰 사용으로 해당 부대장들이 좋아하고 있다”며 “병영 악습도 없어졌고 병영 부조리도 많이 줄고 병사 반응도 좋다”고 밝혔다. 병사들이 중대장이나 대대장에게 신고할 수 있는 길도 다양해져 부대 관리에 훨씬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이병종 기자 jaker@metroseoul.co.kr



폭행과 강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 ‘직원 폭행’ 양진호 회장 체포

영장에 마약 투약 혐의 포함  
경찰이 회사 직원 폭행과 수련회 엽기행각 등으로 물의를 빚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7일 체포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합동수사팀은 이날 낮 12시 10분께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양 회장을 체포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공개된 영상에 담긴 직원 폭행과 강요 등 혐의로 전날 양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체포영장에는 마약 투약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양 회장의 최근 행적에 비춰 소환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양 회장 체포에 나섰다.

양 회장은 2015년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사무실에 전직 직원을 불러 폭행하는 장면, 위크숍에서 직원에게 도검과 활 등으로 닭을 잡도록 강요하는 영상이 잇따라 공개돼 공분을 일으켰다.  
앞서 경찰은 국내 웹하드 업계 1·2위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양 회장이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의 웹하드 유통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잡고 수사해왔다.  
경찰은 지난 2일 양 회장의 자택과 위디스크 사무실 등 10곳을 압수수색해 영상 속 무기로 추정되는 도검과 활, 화살 등을 확보했다.  
또한 의장형 하드디스크와 USB, 휴대전화 등도 확보해 양 회장의 추가 범행을 수사해왔다. /이병종 기자

## 국토부, 국토교통 R&D 관리체계 전면개편

성과 중심, 연구자 친화형 도입  
기획 제안 온라인 접수창구 신설

앞으로 국토교통 연구개발(R&D) 관리체계가 성과 중심, 연구자 친화형으로 전면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8일부터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R&D 관리기관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함께 학계와 산업계 연구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기획·선정·연구·활용에 이르는 R&D 라이프사이클 전반의 혁신을 추진한다.

R&D 과제 기획 단계에서는 연구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 과제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접수창구를 신설한다.

제안 과제가 신규 기획 과제로 채택되기까지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해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과제의 선정·평가 단계에서도 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위원 위촉 시 연구 실적과 논문 등의 자격요건을 강화한다.

사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개발 방향에 대한 조언에 중점을 둔 컨설팅 평가를 시범 도입한다.

연구 단계의 행정 부담도 완화한다.

과제의 접수와 협의 과정을 온라인화하고 과제평가 시 실적 증빙서류 제출을 폐지하는 등 종이 없는 연구행정을 구현한다.

형식적으로 반복되는 점검회의는 최소화하는 등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 같은 운영규정 개정사항 외에도 회의비 등 복잡했던 연구비 정산과정을 간소화한다.

성과가 있는 R&D의 후속 연구를 지원하는 ‘이어달리기 사업’을 신설하고, 우수 기술의 시장진출을 지원하고자 국토관리청과 산하 공공기관 중심의 공공구매협의체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김형석 정책기획관은 “혁신방안은 그동안 관리에 중점을 두어 온 국토교통 R&D를 연구자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국토교통 R&D가 성과 중심, 연구자 친화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새로운 개선과제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 종합-전문건설 ‘칸막이’ 40년만에 없앤다

국토부,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업역규제 2021년까지 단계적 폐지

건설업계가 40년 묵은 종합-전문업체간 칸막이를 허문다. 업역 규제는 단계적으로 폐지돼 오는 2021년이면 공공공사에서부터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해진다. 또 건설업체 등록을 위한 필요 자본금 기

준도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이북남 건설산업혁신위원회와 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식’을 개최했다. 아울러 건설산업 생산구조의 큰 틀을 짜는 건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합의했다.

지난 6월 발표한 ‘건설산업 혁신방안’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던 업역·업종·등록기준 등 생산구조 혁신에 대해 업계·노동계와 논의한 끝에 세부 사항을 확정된 것이다.

정부는 이번 노사정 선언으로 업역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종합과 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건설업계에 준비할 수 있도록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공공공사를 시작으로 2022년부터는 민간공사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채신화 기자

# 반성없는 사립유치원... 원장들 '3법 반대 댓글조작' 의혹

국회입법예고 시스템 '유치원 3법' 원장들이 교사들에 반대댓글 지시 댓글 내용 "법안, 사유재산권 침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이른바 '유치원 3법'에 반대하는 온라인 댓글을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교사들에게 지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유치원들이 해당 법안에 대해 집단 반발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7일 13시를 기준으로 국회입법예고 시스템에 댓글이 많은 관심입법예고를 보면,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무려 7677건의 댓글이 달려 1위를 기록 중이다. 이어 사립학교법(6152건), 학교급식법(5792건) 등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이른바 '유치원 3법'이 1~3위를 기록하고 있다. 3개 법안에 달린 댓글을 모두 합하면 2만건에 육박해 타 입법예고 1건당 1000건 내외의 댓글이 달리는 것과 비교된다.

이들 3개 법안은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9일까지 입법예고된다. 법안은 정부가 유치원에 주는 '지원금'을 횡령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보조금'으로 성격을 바꾸고, 부당 사용시 반환을 명령할 수 있도록

**제목 : 반대합니다.**

유아학비 지원금을 학부모에게 직접 전달하고 부모님들께 교육기관을 선택하라고 하세요 왜 이제껏 자기들이 편하자고 기관에 몰아서 쥐서 불법이니 비리니 난리입니까 학부모님께 바로 주면 유치원 기관들도 오히려 업무가 줄고 더 좋습니다.

6941	반대합니다
6940	반대합니다
6939	반대합니다
6938	반대합니다.
6937	반대합니다
6936	반대합니다
6935	반대합니다

7일 국회입법예고 시스템에 올라온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3개 법안에 대한 댓글 대부분이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주로 법안이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등 국내 사립유치원 최대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주장과 같다. /웹서

하는 규정이 담겼다. 또 징계나 중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유치원장이 유치원 이름만 바꿔 다시 개원하는 이른바 '간판갈이'를 방지하고 교육부·교육청이 구축한 회계관리시스템 의무사용 규정 등도 포함됐다.

댓글 대부분은 반대 의견이다. 특히 유치원 원장들이 교사들에게 댓글을 달라고 지시했다는 폭로도 제기됐다. 자신을 사립유치원 교사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지난 6일 수도권 맘 카페 카카오톡 대화방에 "(원장이)법안에 반대 댓글을 달라고 교사들에게 시키고 있다"며 "사립 원장님들 반성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썼다. 이 누리꾼은 "(원장들은)사유재산을 지킬 생각뿐이다. 유치원에서 강요하는게 너무 어이 없어서 여기 올랐다"며 "지금 도배되는 반대 댓글들은 원장들이 교사에게 시켜서 올라가는 글들입니다. 댓글까지도 써주거나 복사하는 식"이라

고 했다.

특히 반대 댓글 내용을 보면 '법안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정부 지원금을 학부모에게 쥐, 학부모들이 유치원을 선택하도록 해야한다'는 등 국내 사립유치원 최대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주장과 동일하다.

반대글을 올린 차 모 씨는 "국공립유치원이나 학교와 달리 사립유치원 설립은 철저하게 개인의 노력과 투자로 이뤄졌음에도 사립유치원만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유치원비 일부가 국가자금에서 들어온다는 이유로 사립유치원을 공공재로 보고 국공립과 같은 잣대로 재단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사립유치원이 경쟁을 바탕으로 설립자와 원장이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투자해 질 높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애쓰는 현실을 무시하면 안된다"고 했다.

또 김 모 씨는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주는 지원금을 학부모에게 아이행복카드로 지원해주시길 바란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고, 강 모 씨는 "지원금이던 보조금이던 학부모님께 지급해 주시고 부모님께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학부모나 유치원 교사라고 소개하면서 반대 댓글을 다는 경우도 많다. 사립유치원 교사라고 밝힌 백 모 씨는 "누리 지원

금 서류 하느라 수업도 퇴근도 제대로 못한다"며 "에듀과인 도입은 지금 우리 현장 인력의 열악한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 교사들에게 업무가 더욱 가중될 에듀과인은 현장에서는 원치 않는다"고 했고, 차 모 씨는 "학부모 입장에서 저는 반대한다"며 "누리과정 지원금을 학부모에게 지원해주고 사립유치원에게 자율교육권을 주고 선택권을 부모에게 주는 것을 원한다"고 썼다.

이런 댓글에 대해 맘 카페 누리꾼은 "그럴줄 알았다"며 "저는 동의버튼 누르고 의견도 남기고 나왔는데, 반대가 압도적이더라구요. 무슨 알바생을 풀줄 알았다"고 혀를 찼다.

한편 폐원하는 사립유치원들이 속속 늘면서 유치원 입학 대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7일 교육부에 따르면, 6일 오후 5시 30분을 기준으로 전국 38개 사립유치원이 폐원신청서를 냈거나 학부모들에게 폐원 안내를 했고, 1곳은 원아 모집 중단을 안내했다. 이는 나흘 전인 지난 2일보다 폐원 안내는 9곳, 폐원신청 유치원은 1곳이 증가한 것이다. 또 원아 모집 설명회를 열지 않거나 보류하는 유치원들도 많아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대학가 소식**



숙명여대가 여성 IT 인재 육성을 위해 지난 2~3일 개최한 '숙명 우먼인테크 해커톤' 대회에서 임산부 좌석 알림이 시스템을 발표한 '자리를 찾아조' 팀이 대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숙명여자대학교

**숙명여대 IT인재 육성... '숙명 우먼인테크 해커톤' 성료**

숙명여자대학교(총장 강정애)는 우수 여성 IT 인재 육성을 위해 지난 2~3일 개최한 '숙명 우먼인테크 해커톤' 대회에서 임산부 좌석 알림이 시스템을 발표한 '자리를 찾아조' 팀이 대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받았다 7일 밝혔다.

해커톤(Hackathon)은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마치 마라톤을 하는 것처럼 구성원들이 한정된 시간 안에 아이디어 창출과 서비스 모델을 완성하는 행사를 뜻한다.

이번 대회는 여성 개발자의 개발능력

향양과 관련 분야 여성 진출을 늘리기 위해 숙명여대가 개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인 아마존웹서비스 후원으로 진행됐다. 대회에는 총 120여명의 전국 여자 대학생과 대학원생과 일반인이 참여했다.

대상을 차지한 지하철 임산부 좌석 알림이 시스템은 어플을 통해 실시간으로 사용 가능한 임산부 배려석을 확인할 수 있고, 블루투스 같은 센서를 좌석에 붙여 작성자가 임산부가 아닐 경우 안내 메시지가 나오는 시스템이다. /한용수 기자

## 오프라인 대학보다 탐방·특강 많은 사이버대는?

**한양사이버대 광고미디어MBA**

여름마다 日 대학에 학생 상호 파견

"사이버대학이지만 일반 오프라인 대학보다 현장 탐방·특강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미디어와 콘텐츠를 융합하는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 프로그램'의 일환이지요."

한양사이버대학교광고미디어MBA가 사이버대 대학원 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이버대는 오프라인 수업에 참석이 어려운 기업 CEO와 전문가들에게 인기가. 하지만 이 대학 광고미디어MBA는 온라인 수업뿐만 아니라 광고, 미디어, 문화 기관 등 다양한 기관을 탐방하고, 다양한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오프라인 특강을 진행한다.

한양사이버대 광고미디어MBA 서구원 주임교수는 "사이버대학의 특성상 학



한양사이버대 광고미디어 MBA 서구원 교수와 학생들이 중남미문화원 이복형 전 대사, 홍갑표 이사장을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한양사이버대학교

생들은 오프라인에 대한 욕구가 높고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진 학생들이 많아 오프라인 프로그램 참석률이 높다"고 말했다.

광고미디어MBA는 매년 MBC, YTN 등 미디어 제작 현장은 물론 경기도 고양시 소재 중남미문화원을 방문한다. 특히 중남미문화원에서는 35년 이상 중남미 대사를 지낸 이복형 전 중남미 대사와 홍갑표 이사장과 직접 만나 문화원의 철학과 중남미 문화에 대한 산 지식을 습득한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유명해진 '성수동 문화의 거리', 청년창업 프로그램으로 성공한 '언더스탠드 예비뉴', '인사동 한옥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오프라인 대학보다 더 많은 현장 교육이 진행된다. 또 업계 전문가 초청 강연이 이뤄지고 매년 여름방학에는 일본 리츠메이칸대(立命館大)와 학생 상호파견을 통해 양국 산업을 직접 체험하기도 한다.

/한용수 기자

**이화여대**

**재학생·교직원 등 150여 명 '김장 3.5톤' 담가 이웃 전달**

이화여자대학교(총장 김혜숙)가 8일 오전 교내 교직원식당에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이화여대가 2001년부터 18년째 지속하는 '이화인이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행사는 자원봉사에 나선 이화여대 재학생과 교직원, 외부 봉사자 150여 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3.5톤 규모의 김장김치를 담근다. 담근 김치는 인근지역 한부모, 조손,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희귀난치성환자 등



지난해 이화여대가 진행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 모습. /이화여자대학교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350여 가구에 가구당 10kg씩 전달된다.

이화여대는 지난해에도 김장을 담가 인근지역 350여 가구에 제공하고 후원금 모금을 통해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 24명에게 장학금 약 1200만원을 전달한 바 있다. /한용수 기자

## 네이버·엔씨 급여 뛰어넘은 '슈퍼벤처기업'은?

**사람인, 매출 1000억 이상 311곳 설문 씨에스윈드, 직원 평균 9200만원 급여 상위 10개사 평균 8200만원**

연 매출액 1000억원을 넘는 '슈퍼벤처기업' 상위 10개사의 평균 급여는 82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1인당 평균 9200만원을 지급한 씨에스윈드가 평균 급여 1위를 차지했다.

사람인은 벤처기업협회가 올해 발표한 '2017년 매출 1000억원 이상 벤처기업 명단(572개사)' 중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2017년도 사업보고서를 낸 311개

사 직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7일 밝혔다.

직원 1인당 평균 급여(연봉·수당·성과급 등 포함 실질급액 기준)가 높은 상위 10개 기업으로는 씨에스윈드가 92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에스에프에이가 8405만원으로 2위에 올랐다. 이어 ▲테스(8400만원) ▲토펙(8400만원) ▲고영테크놀러지(8300만원) ▲엔씨소프트(8277만원) ▲네이버(8233만원) ▲유진테크(8000만원) ▲동양피스톤(7427만원) ▲텔레칩스(7311만원) 순으로, 8개 기업이 평균 급여 8000만원 이상을 기록했다.

이들 상위 10개 기업의 평균 급여는

8195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사람이인 올해 초 조사한 2017년 기준 국내 30대기업의 직원 평균 급여 8300만원에 비해 불과 100만원 가량 차이 나는 금액이다.

1인당 평균 급여 상위 기업은 성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남성 평균 연봉은 ▲씨에스윈드(9800만원) ▲네이버(8961만원) ▲고영테크놀러지(8600만원) ▲에스에프에이(8550만원) ▲테스(8500만원) 순으로 높았고, 여성의 경우는 ▲유진테크(9300만원) ▲네이버(7041만원) ▲텔레칩스(6340만원) ▲고영테크놀러지(6300만원) ▲토펙(6100만원) ▲엔비에이치코리아(5700만원) 순이었다. /한용수 기자

NAVER 성산일출봉 스위트엠 프레시빌

# 내 집에서 성산일출봉과 바다를 품다! 세컨하우스+실거주+투자(임대)

우도 (해양도립공원)

성산일출봉 (세계자연유산)



성산일출봉 제주최초 스테이크이성하우스 SWEET M 프레시빌

## 〈제2공항의 높은비전〉 다시없을 투자기회, 매력적인 특별혜택

1가구 2주택  
해당없음

9.13 대책의  
최대 수혜지

중도금전액  
無이자

분양권 전매  
가능

제주도차고지증명제시행  
100% 자주식  
주차확보



제주의 감동을 담아! 당신의 바람을 담아!  
가장 제주다운 공간을 드립니다

우도·한라산 조망 3면 바다뷰  
마트/학교/병원 등 생활 인프라

성산일출봉, 섭지코지 등 관광 명소  
테라스가 있는 프리미엄 주거(일부)

제주 제2공항(추진중)  
10분대 비전 입지



조망을 극대화한 테라스 설계 (일부세대)



단지 중앙 옥외중정



100% 자주식 주차장 (오피스텔 실당 1대, 연립주택 세대당 1.7대)



빌트인 시스템



원스톱라이프를 누리는 주거 편의시설

성산일출봉 제주최초 스테이크이성하우스 SWEET M 프레시빌

오피스텔 연립주택 분양중

시행 M+ 대한토지신탁(주) S+ 서원 위탁 S+ 주서우A&D



분양 문의 02-553-4200

\*부동산 개발업 등록사(법인) 대한토지신탁(주) \*등록번호:서울080011 \*주요영업소: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517, 26층(성신동 아셈타워) \*시행사:대한토지신탁(주) \*시공사:서원종합건설(주) (주)서원(주) \*위탁사:(주)서우A&D \*분양대행사:주에이제이엔터 \*대지위탁계약주소:서울시 성신동 성신리 26-2번지 외 4필지 \*규모 및 용도:지하3층-지상7층, 오피스텔, 연립주택, 부대편리시설 \*대지면적:26,222㎡ \*연면적:15,751.30㎡ \*최종 인·허가:내용에 따라 면적 및 일정 등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올바른 권익보호를 위해 변경 계약 단위(㎡)를 사용합니다. \*본 홍보물은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홍보물에 사용된 CG와 일러스트 이미지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이므로 권보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차 등기 때의 소비자피해보상은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상기 개발계획 관련 사항은 해당 사업주체의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취소 및 축소,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호타이어, 서울시와 4년째 탄소상쇄 숲 조성** 금호타이어가 서울시와 손잡고 '금호타이어 탄소 상쇄 숲' 조성에 나섰다. 금호타이어와 서울시가 공동 주최하고 서대문구 주관으로 지난 6일 서울 홍은동 북한산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3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이호 금호타이어 경영기획본부장(오른쪽 두번째)과 안재성 금호타이어 경영지원담당 상무(오른쪽 첫번째)이 행사 참가자들과 함께 나무를 심으며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동서식품, 동서문학상 수상자와 세계한글작가대회 참관** 동서식품은 제 14회 '삶의 향기 동서문학상'의 부대 행사로 수상자들과 함께 경북 경주에서 열린 '제4회 세계한글작가대회'를 참관했다고 7일 밝혔다. 동서문학상을 통해 등단한 후 활발한 문학 활동을 펼치고 있는 기 수상자들은 멘토의 자격으로 올해 수상자들을 응원하고 격려하며 선후배가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을 가졌다. /동서식품



**롯데제과, 배빼로데이 앞두고 나눔활동** 롯데제과가 11월 11일 배빼로데이를 맞아 사회복지단체에 제품을 기부하며 활발한 사회 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롯데제과는 지난 5일 '대한적십자사'에 과자 1170 박스, 6일 '사랑의열매'에 과자 4700 박스를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롯데제과가 기부한 제품은 전국 어린이, 청소년 관련 사회 복지시설로 전달된다. /롯데제과



**롯데주류 '처음처럼 2호 숲' 식수식 진행** 롯데주류가 인천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 약 3300㎡(약 1000평)에 처음처럼 2호 숲을 조성한다고 7일 밝혔다. 처음처럼 2호 숲 조성을 위해 지난 6일 이종훈 롯데주류 대표이사, 조주형 문화조정사업처장, 김형수 트리플레닛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인천 수도권매립지에서 식수식을 진행했다. /롯데주류



**BNK캐피탈, 카자흐스탄 현지 법인 개소** BNK캐피탈은 지난 6일 카자흐스탄 알마티의 BNK캐피탈 카자흐스탄 법인 사무실에서 'BNK캐피탈 카자흐스탄 현지 법인' 개소식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왼쪽 두번째부터) 카자흐스탄 한인회 조성관 회장, BNK캐피탈 이두호 대표, 주 카자흐스탄 알마티 총영사관 전승민 총영사, BNK캐피탈 조현준 상임감사위원, 박병수 카자흐스탄 법인장. /BNK캐피탈

# 재수가 없어지는 비결?



**진성오** 소장의  
**심리학**

인생을 살면 살수록 세상 모든 것은 운에 좌우된다는 의미로 기승전결이 아닌 '기승전운(運)'이라는 말이 자주 떠오른다. 주변이나 필자가 만난 사람들 중 성공하기 싫고 돈 많이 벌기 싫고 혹은 사랑받기 싫은 사람이 없었다. 간혹 싫다고 말하는 사람의 마음은 그런 일이 자신에게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신념(?) 같은 것 때문일 뿐, 성공이 정말 싫다는 사람은 없었다.

그래서, 필자는 심리학적 측면에서 운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연구하다가, 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운 또는 재수가 없어지는 방법 아닌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역설적이지만 재수가 좋아지기 위해 없어지는 방법을 알아보자.

우선, 재수나 운이 없는 사람의 마음은 이렇다. 그들은 어떤 것에 대해 일종의 욕심이 생긴다. 이런 욕심은 자아의 특성 중의 하나이며 자아는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 진화시킨 중요한 생존 기재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자아가 자신의 생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대상이 생기면 자아는 그 대상을 중요한 어떤 것으로 분류한다. 그 순간 그 중요한 대상에 대해 꼭 갖거나 혹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소유욕이 발생한다.

이 소유욕이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 소유욕으로 인해 그 대상의 중요성은 점점 높아지면서 그 대상에 대한 집착이 발생한다. 그래서 재수 없는 사람들은 집착이 발생하면 그 대상에 대해 일종의 너무 많은 신경을 쓰고 애를 쓰는 단계로 들어간다. 애를 쓴다는 것은 어떤 움직이지 않는 것에 대해 힘을 쓰는 것과 같다. 힘을 쓴다는 것은 경직되는 것이고 경직은 단단함을 만들고 단단함은 주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게 한다. 그 순간 더 경직되고 더 힘을 주고 그래서 바로 가장 두려워하는 부러지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눈발에 미끄러졌을 때 다치지 않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몸에 힘을 빼고 모든 것을 흐름에 맡기는 것이다.

그러나 재수없는 사람들은 살아보기 위해 팔을 내던거나 자신도 모르게 온몸에 힘을 준다. 자연스러운 흐름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그 순간만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과는 다르게 자신이 피하고 싶은 부정적인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이 경험

은 더 경직되고 융통성이 떨어지게하여 주변도 재수없게 만들게 된다.

이런 흐름을 한발 뒤에서 보면 결국 재수가 없어지는 것은 삶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연관됨을 알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하나? '삶은 멀리서 보면 하나의 희극이며 가까이서 보면 하나의 비극'이라는 말이 있다. 이 격언은 그대로 우리에게 운을 부르고 재수 없는 상태에서 재수가 있는 상태로 바꾸는 방법이기도 하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대해 너무 가까이 다가가서 비극처럼 보이면 멀어지는 현명함이 너무 멀어져서 삶이 희극으로만 진지함을 잃을 때는 다가가는 현명함이 필요하다.

공자님은 그것을 중용 혹은 시중이라고 하셨던 듯하다. 삶의 중용이란 우리가 너무 귀하고 중하다고 여겨 집착을 할 때는 멀리 떠나서 봐야하며 너무 멀어 공염불을 하고 초탈한 듯 하여 무관한 듯 허무할 때 다시 다가가서 작은 것에 집중하고 애착하는 능력이 아닐까?

결국 재수가 없어지는 비결이란 집착과 경직됨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운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고 하더라도 운이 너무 매달리면 재수가 없어지게 된다. 그러니 우리 모두 릴렉스 하자!

/당신의마음연구소장

# 예보, 카자흐스탄 보험금지급시스템 컨설팅

현지 KDIF 대상 보고회 개최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6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예금자보호기금(KDIF)을 대상으로 '보험금지급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ISMP) 완료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예보는 지난 6월부터 컨설팅 사업을 실시해 KDIF 현황분석 및 요구사항 수렴, 목표모델 설계 등을 거쳐 'KDIF 맞춤형 보험금지급 시스템 설계안'을 보고회에서 발표했다.

이형표 예보 정보시스템실장은 "이번 컨설팅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기반으로 실제 시스템 구축사업이 전개돼 KDIF가 카자흐스탄의 예금자보호서비스 강화를 위해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브드라흐마노프 누를란 KDIF 사장



이형표 예금보험공사 정보시스템실장(앞줄 왼쪽 다섯번째) 등 공사 직원과 카자흐스탄 예금자보호기구 임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은 "이번 컨설팅 사업으로 설계된 선진적 목표모델을 향후 정보시스템 구축 시 활용 예정"이라며 "카자흐스탄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예보는 컨설팅 사업 완료 이후 KDIF가 향후 실제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 인사

- ◆**통계청** ◇ 3급 승진 △ 산업통상과장 어운선 ◇ 4급 승진 △ 국제협력담당관실 김철주 △ 행정자료관리과 박진호 △ 경제통계기획과 김희중
- ◆**농림축산식품부** ◇ 신규 임용 △ 정책보좌관 황인기
- ◆**글로벌이코노믹** △ 산업부장 겸 편집국장 대우 김민구 △ 편집위원 김영인
- ◆**한국서부발전** ◇ 처장(갑) △ 신재생사업처장 장광규 △ 신재생사업처 실장(동두천드림파워 파견) 한상문 △ 관리처장 정태호 △ 관리자 노무복지부장 윤승철 △ 발전운영처장 최용범 △ 건설처장 김영남 △ 태안발전본부 연소환경실장 박상용 △ 태안발전본부 제2발전처장 박현철 △ 평택발전본부 복합발전실장 이순상 △ 처장(을) △ 감사실 감사전략부장 김성도 △ 국정과제추진실 홍보부장 이세문 △ 해외사업처 사업개발부장 이흥택 △ 신재생사업처 신에너지사업부장 문재중 △ 기획처 미래대응전략실장 김중훈 △ 관리자 총무부

- 장 승승남 △ 발전운영처 연료조달실장 강세훈 △ 발전기술처 4차산업총괄부장 이상용 △ 건설처 기전부장 이희의 △ 안전품질처 재난안전부장 김향기 △ 태안발전본부 부장(세남노이 수력 SPC 파견) 박준석 △ 태안발전본부 환경설비부장 강정구 △ 태안발전본부 IG기계부장 김재식 △ 태안발전본부 건설관리실장 이건우 ◇ 부장(2직급) △ 감사실 총괄감사부 차장 장승준 △ 기획처 성과관리부 차장 정래현 △ 관리자 계약자재부 차장 정연신 △ 보안처 ICT총괄부 차장 이운재 △ 태안발전본부 대외협력처 계약부 차장 이양희 △ 태안발전본부 대외협력처 경영지원실 총무부 차장 송광석 △ 태안발전본부 제3발전처 계속제어부 차장 권오정 △ 해외사업처 O&M사업부 차장 황계한 △ 기획처 예산자금부 차장 김기수 △ 발전운영처 발전운영실 차장 김일식 △ 발전운영처 발전계획부 차장 박주일 △ 발전기술처 사내벤처팀장 노대인 △ 건설처 부장(신규사업담당) 김명목 △ 태안발전본부 차장(세남노이 수력 SPC 파견) 강지현 △ 태안발전본부 IGCC발전처 전기부 차장 김영철

- △ 태안발전본부 제2발전처 터빈부 차장 왕민석 △ 태안발전본부 제3발전처 계속제어부 차장 오승환 △ 태안발전본부 건설관리실 기전부 차장 유재철 △ 평택발전본부 기력발전부 차장 조인식 △ 군산발전본부 기계부 차장 오승철 △ 발전기술처 연구개발부 차장 김용택 △ 태안발전본부 IGCC발전처 공정안전부 차장 김대성 △ 보안처 정보보안부 차장 조현 △ 국정과제추진실 사회공헌부 차장 형남환 △ 안전품질처 재난안전부 차장 신상철 ◇ 책임기술전문원(2직급) △ 서부발전연구소 선임기술전문원 황영하

## 부음

- ▲ 남금순씨 별세, 이만옥(전 인천금융고등학교 교사)·이용연(임시컨설턴트)씨 모친상, 이만기(유웨이중앙교육 상무)씨 장모상, 이다비(조선비즈 기자)씨 외조모상 = 7일, 인천 가천대길병원 장례식장 302호, 발인 9일 오전 6시 ☎ 032-460-9405



# 상생으로 일궈낸 1만톤의 쌀알, 농가소득 증대

## Q 르포 | CJ프레시웨이 황등농협미곡처리장을 가다

CJ프레시웨이는 올해 전국 11개 지역, 1000여 농가와 손잡고 계약재배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전북 익산시에서는 쌀을 계약재배하고 있다. 벼농가들이 판로 걱정없이 농사일에만 전념할 수 있었던 이유는 CJ프레시웨이와의 계약재배 때문이다.

지난 2일 서울에서 3시간여를 달려 CJ프레시웨이가 계약재배로 벼농가의 시름을 덜어주고 있는 상생의 현장인 전북 익산시 황등면에 위치한 황등농협미곡처리장(RPC, Rice Processing Complex)을 찾았다. 황등면에서 수확한 쌀들이 온두 이곳으로 모인다. 도착했을때 여러대의 지게차가 실재없이 포대를 움직이고 있으며, 포대 안에는 산물상태의 벼가 가득 담겨 있었고, 지게차는 벼를 투입구에 넣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지게차 뒤로는 많은 양의 포대가 즐지어 있었다.

이처럼 농가에서 수확된 산물벼는 RPC에 전부 모이게 된다. 이후 건조기로 투입된다. 다만 건조기에 여유가 없을 때 양곡사일로에 임시 저장돼 송풍건조를 하게 된다. 이때 건조는 40도로 20시간 진행된다. 이 과정을 통해 27~28%였던 벼의 수분은 15~16%까지 떨어진다.

건조를 나온 벼는 창고에 저장된다. 이때 창고의 온도는 10도를 유지한다. 쌀이 발아하는 걸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곳에 저장된 벼는 발수가 들어오면 바로 도정 과정을 시작한다.

RPC의 도정과정은 최신식 설비로 되

### 2016년부터 계약재배 시작

### 체크시트로 RPC 지속적 관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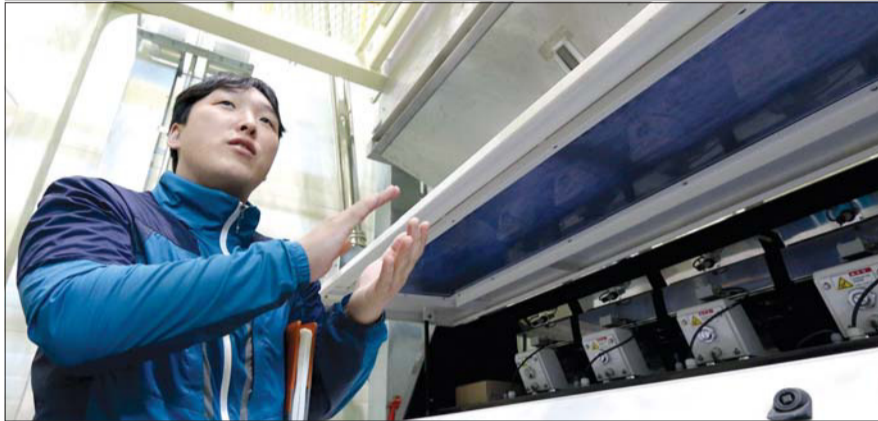
### 8000t 구매 전망... 햇반에 사용

어있다. 약 12개 과정을 거치면 우리가 먹는 쌀이 된다.

먼저 종합석발기를 통해 재현 과정을 거친다. 재현 과정에서 현미가 안 된 벼는 재가공을 진행한다. 이 과정을 통과해야만 현미석발기 단계로 들어갈 수 있다. 현미석발기 과정에서도 농진 이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계속된다. 이후 정미과정에서는 현미를 백미로 바꾸며, 정미기를 통한 쌀은 거칠어진 쌀 외부를 깎는 '연미' 과정에 투입된다. 연미기를 지나면 색채선별기 과정을 거친다. 색채선별기는 LED조명을 이용해 쌀을 감별하는 것으로, RPC에 있는 색채선별기는 국내 최대 체널수를 가진 기계다. 이후에는 진동체선별기를 거쳐야 우리가 먹는 쌀이 된다.

김우성 황등농협 RPC 대리는 "쌀에 이물이 들어갈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낮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대리는 "RPC에 좋은 기계들을 설치하는 것만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며 "RPC는 CJ프레시웨이가 제공하는 체크시트로 관리를 진행하고 있고, 품질혁신팀 등과 RPC를 위한 좋은 정보 등을 끊임없이 공유하는 등 최상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등농협미곡처리장(RPC)에서 지게차가 산물벼를 투입구에 넣고 있다(위). 김우성 황등농협 RPC 대리가 색채선별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CJ프레시웨이가 익산시와의 계약재배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해는 지난 2016년부터다. 익산시는 국내 4대 쌀 생산지로 유명한 곳으로 이 지역 전체 농가의 90%는 벼농사로 생계를 이어간다. 과거에는 벼농사만 잘 지어도 '부자' 소리를 듣는 일이 빈번했지만 쌀 소비가 줄면서 상황

은 어려워졌다.

하지만 CJ프레시웨이와의 계약재배를 인연으로 이 지역의 농가들은 한시름 걱정을 덜게 됐다. CJ프레시웨이가 지난 2016년 익산시 황등면에서 계약재배를 통해 구매한 쌀은 약 1600t이다. 이후 2017년 CJ프레시웨이는 이전 해보다

130% 이상 구매량을 늘려 약 3700t을 사들였으며, 올해에는 약 8000t에 달하는 쌀을 구매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CJ프레시웨이가 구매한 쌀은 CJ제일제당의 대표적인 가정간편식 제품인 '햇반'을 제조하는데 사용된다.

서상원 황등리 신기1마을 영농회장은 "계약재배를 실시하기 전에는 제값을 받기는 커녕, 가을에 재배한 쌀을 절반도 판매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며 "하지만 계약재배를 시작한 후부터 판로 걱정이 없어 안정적인 소득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CJ프레시웨이와 익산시의 계약재배 사례는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보장해 주고, 나아가 쌀 소비 촉진을 돕는다는 점에서 상생경영(CSV)의 사례로 꼽히고 있다. 실제 익산시 황등농협은 CJ프레시웨이와의 계약재배를 통해 쌀 소비 확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농식품 상생협력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민규 CJ프레시웨이 신선상품팀 과장은 "CJ프레시웨이의 계약재배는 농가에는 판로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확보가 가능하게 하고, 기업은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물량확보를 통해 상품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Win-Win할 수 있는 구조다. 이는 CJ그룹의 주요 경영방침의 하나인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확대에도 부응할 수 있어 앞으로도 농가와 의 계약재배를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익산(전북)·박인용 기자 parku7854@metrosoul.co.kr



**홈플러스, 수험생 위한 기획상품 대거 선보여**  
모델들이 7일 서울 등촌동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수능 응원용품 기획전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홈플러스는 오는 14일까지 국내 주요 대학교 협업 초콜릿과 두유를 비롯해 껌, 캔디, 에너지바 등 수능 응원용품을 판매한다. 관련 제과음료 상품을 2만5000원 이상 구매하면 5000원의 상품권을 증정한다. 또한, 수능 당일 수험생의 점심 식사에 유용한 썬모스·락앤락 도시락과 보온병을 행사 카드 결제 고객에게 최대 30% 할인판매한다. /홈플러스

## 물가 안정 프로젝트 'THE PRICE' 확대

### 이마트24, 평균 일매출 5% 늘어나

이마트24가 물가 안정 프로젝트 'THE PRICE'를 전점으로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THE PRICE'는 더 가까운 곳에서, 더 싸게, 더 많은 상품을 고객에게 연중 상시 제공한다는 뜻이다.

이마트24는 지난 8월 가계물가 부담 완화와 가맹점 매출 활성화를 위해 고객의 수요가 높은 상품 16개 품목을 선정, 대형마트 가격 수준으로 연중제공하는 물가 안정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1차적으로 주춧가 상권 점포 550여점을 대상으로 물가 안정 프로젝트를 시범

운영한 결과, 점포 평균 일매출이 전년 대비 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트24는 편의점 영업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주춧가 상권의 가맹점 매출 신장은 유의미한 결과라고 판단, 물가 안정 프로젝트를 전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물가 안정 프로젝트는 하루엔컵 우유(1000ml), 민생라면, 구운란10구, 배추김치(900g) 등 신구 상품을 추가, 총 19개 품목(신선식품 1품목, 가공식품 12품목, 생필품 6품목)에 대해 행사를 진행한다. 하루엔컵 우유는 최근 우유팩 인상이 부담을 느끼는 고객을 위해 이마트24가 자체 개발한 상품(PL)으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신원선 기자

## "내년 초대형 맥주 신제품 선보일 것"

### 이경우 디아지오 대표

### 위스키 더불어 맥주 시장 공략 강화 인터넷서널 위스키·싱글몰트 성장

"내년 초 초대형 맥주 신제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조니워커, 위저, 기네스 등을 판매하고 있는 디아지오코리아가 맥주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이경우 디아지오 대표(사진)는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IFC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입맥주 시장이 두 자릿수 이상으로 성장하고 있고, 이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 같다"고 말했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자사의 주력 제품인 위스키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거듭 성장하는 수입맥주로 수익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맥주 시장에서 세계 맥주의 점유율이 지난 2012년 3.4%였지만, 올해 20%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디아지오코리아는 내년 1월 아일랜드 비어를 출시할 예정이다. 다만 기네스와 겹치는 스타우트류는 아닌 것으로 알려지면서 라거 또는 IPA 종류로 예상된다.

이과 관련해 이 대표는 "위스키 시장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디아지오는 미국 방송국인 HBO와 함께 미드 '왕좌의 게임(The Game of Thrones: The Card Game)' 제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왕좌의 게임에서 등장하는 7개 가문과 장벽을 지키는 나이트 워커, 화이트 워커를 상징하는 9개 위스키 제품이다.

이 대표는 "침체기를 겪던 위스키 시장의 반등 사이인 보인다"며 "양보다 질을



추구하는 문화가 커지고 있고, 인터넷서널 위스키와 싱글몰트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디아지오코리아는 퀄리티 높은 위스키를 소개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저도주 시장에서 연산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리는 '하우 올드 아 유(HOW OLD ARE YOU)' 브랜드 캠페인이 대표적이다. 위스키를 선택할 때 제품의 연산표시를 직접 확인하고, 정확한 가치를 판단하자는 메시지를 담았다.

이 캠페인을 통해 12년과 17년산 최상급 스코틀랜드 위스키 원액으로 만든 프리미엄 연산 저도주 'W시그니처 12, 17'를 알린다는 계획이다.

끝으로 이 대표는 "혼자 먹는 혼술과 집에서 마시는 홈술 열풍으로 인터넷서널 위스키와 싱글몰트 시장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디아지오코리아는 혼술·홈술을 위한 소용량 제품을 출시해 인기를 얻었다. 조니워커 레드 소용량 패키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1년간 전국 편의점 채널 내에서 전년 대비 17%의 성장률을 보였다. /박인용 기자

## GS샵

### '모바일 홈' 자동화 구축

GS샵이 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모바일 홈 화면을 자동 운영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사람 손을 거치지 않고 GS샵의 모바일 메인 화면에 대표 상품들이 자동 선별·노출되는 것.



GS샵은 기존 사람이 일일이 상품을 큐레이션했던 모바일 홈 화면을 10월부터 자동화했다고 7일 밝혔다. 약 5000개의 TV 및 데이터홈쇼핑 상품을 편성표, 주문 고객수, 주문 금액, 상품 클릭수 등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각 점수화하고, 이를 순위별로 자동 노출하는 편성 로직을 구축했다.

이에 따라 GS샵 모바일 홈 화면에는 '실시간 인기점수'를 반영한 TV·데이터홈쇼핑 상품이 자동 진열되며, 이는 1시간 단위로 갱신된다. 'GS샵이 팔고 싶은 상품'이 아닌 '실제 고객이 많이 찾고 구매하는 상품'을 제안하는 게 핵심이다.

새로운 모바일 홈 화면을 도입하고 10월 한 달간 시범 운영한 결과, 모바일 홈 화면의 UV(순방문자수)는 20% 증가했고 매출은 30% 가량 늘어났다.

이에 GS샵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올 연말경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 고객 개개인에 최적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고객 개개인별 구매 패턴, 장바구니 등을 분석해 선호도를 식별한 후 구매 가능성이 높은 상품을 매칭하고 추천해 주는 방식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줄기세포, 3차원 배양·재조합

# 미니장기로 맞춤형 치료 ‘활짝’

(오가노이드)

오가노이드 학술대회

세계 최초 학회, 한국서 열려  
독성·부작용 등 정확한 확인  
차세대 의료분야로 주목받아

차세대 생명공학기술로 각광받는, 오가노이드(미니장기) 연례학술대회 세계 처음으로 한국에서 열렸다. 오가노이드는 줄기세포를 3차원으로 배양하거나 재조합해 만든 장기유사체로, 신약의 동물 실험을 인체 장기로 대체해 약물의 독성과 효과, 부작용 여부를 더욱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개별 맞춤형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어 차세대 의료 분야로 주목받는다.

7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한국오가노이드학회 연례학술대회’에 모인 전문가들은 오가노이드 연구의 현황을 공유하며, 차세대 난치병 치료기술로 주목받는 오가노이드 모델 개발을 위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함께 고민했다.

개회사를 맡은 박용호 한국오가노이드학회 회장은 “오가노이드 연구·개발은 생명공학분야에서 세계적인 추세로, 환자 개인의 질병을 연구하기에 가장 좋은 모델”이라며 “세계 최초의 오가노이드



세계 첫 오가노이드 학회 창립 발기인 대회가 7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렸다.

드 학회를 한국에서 창설하게 된 것은 굉장한 의미이며, 이 학술대회를 계기로 줄기세포 등의 연구를 한국이 선도할 수 있게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학회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재 의료기술이 오가노이드 시대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오가노이드의 가장 큰 장점은 ‘몸뚱’에서 약물반응을 실험 하더라도 ‘몸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작용을 관찰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약물과 질병에 대한 체내 반응을 더욱 확실히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경선 한국오가노이드학회 이사장은 “동물실험으로 확인한 약효를 사람에게 적용하면 90% 틀리다”며 “인공장기 만들면 질병 치료에 훨씬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줄기세포 시대에서 오가노이드 시대로 넘어가는 단계를 맞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미래 헬스케어는 오가노이드가 이끌 것으로 예상했다.

야스퍼 멀렌더 후브레히트 오가노이드 기술 연구소 박사는 “오가노이드는 실제 인체 장기와 가장 비슷한 세포 실험을 할 수 있는 기술”이라며 “동물 실험에 국한됐던 과거보다 더 정확한 결과를 낼 수 있어 정밀의료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타카노리 타케베 요코하마시립대학교 고급의료연구센터 박사도 “우리는 오가노이드 약이 미래 헬스케어의 첨병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oul.co.kr

# “보건복지, 중장기적 계획 필요”

국회 지구촌 보건복지포럼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지구촌 보건복지포럼’이 7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렸다.

국회지구촌보건복지포럼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지구촌보건복지(이사장이광섭)가 주관한 이날 포럼에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을 초청해 ‘한국의 보건 의료, 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조찬강연을 개최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강연에서 이명수 위원장은 융합과 조화를 통해 세계를 평정한 칭기즈칸의 사례를 제시하며 보건 의료의 발전을 위해서는 주인의식을 갖고 중장기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보건 의료를 국가 첨단산

업의 동력으로 삼겠다고 말하지만 아직 가시적인 노력이 미흡하다”며 “현안에 급급하지 말고,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처럼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혜숙 의원은 “보건복지 정책이 국민 삶에 직접 닿는 내용이 많은 만큼, 어떤 분야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집행이 필요하다”며 “이명수 위원장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모두가 우리나라에서 잘 준비된 보건복지 정책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저 또한 보건복지위원 중 한 명으로서 최대한 많은 노력을겠다”고 말했다.

이날 조찬 강연에는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과 함께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장, 그리고 의료·제약분야 CEO 등 60여명이 함께 참석했다

/이세경 기자



여성벤처협, 20주년 ‘여성벤처기업인의 날’ 행사 가져

한국여성벤처협회는 협회 창립 20주년을 맞아 지난

6일 ‘2018 여성벤처기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선 강경애 아화골프 대표, 김다혜 올리브스톤 대표, 김보경 태양에스엠 대표, 류현숙 효성에어캡 대표, 서정원 티알테크놀러지 대표, 양윤옥 이트 대표, 우수명 아시아코치센터 대표, 이숙영 컴트리 대표, 이영옥 커리어스타 대표, 장경숙 영남엘리더리팅 대표, 최화자 국일안전 대표, 황승주 미주 대표가 여성벤처기업 창업과 성장에 모범이 되는 우수 기업으로 선정돼 중소기업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여성벤처협회

# ‘시몬스 페이’로... 월 7만원에 6성급 호텔 침대를 안방으로

‘매달 6만9000원이면 6성급 호텔에 들어가는 시몬스 침대를 집안에 들여놓을 수 있다.’

시몬스 침대가 불경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분사, 대리점, 소비자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순순환 동반성장’을 위해 7일 팔을 걷어붙였다.

200만~500만원에 달하는 고급 침대를 소비자들 36개월 무이자 혜택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수수료는 대리점이 아닌 본사가 전부 부담하기로 하면서다.

한국 시몬스는 국내 주요 카드사와 손잡고 3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 프로그램인 ‘시몬스페이’를 본격 도입했다고 7일 밝혔다. 소비자들은 BC, 국민, 삼성, 현대, 하나, 농협카드 등 국내 주요 카드사의 개인 신용카드로 시몬스페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시몬스는 매장 규모나 매출 규모에 차등을 두지 않고 시몬스페이 운영대



시몬스가 ‘시몬스페이’를 통한 순순환 동반성장에 나선다. 모델들이 시몬스페이를 알리고 있다.

리점에 각각 올해 4·4분기(10~12월) 총 3000만원씩 특별장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키로 했다. 아울러 고객에게 전달되는 제품 배송비도 시몬스 본사가 전액 부담한다.

이번 시몬스페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실제 6성급 호텔의 침대를 부담 없이 접할 수 있다. 실제 시몬스페이로 제품을 구매(36개월 무이자 할부)하면 250만원

침대는 월 6만9000원, 350만원 침대는 월 9만7000원, 500만원 침대는 월 13만8000원씩 내면 된다.

매트리스와 프레임, 톱셋, 베딩까지 포함한 800만원대 침실 건적은 월 22만원대로 구성할 수 있다. 시몬스페이에 관한 자세한 정보와 매장 리스트는 시몬스 침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 JW중외제약 아토피치료제 임상1상 승인

가려움·염증 억제... 부작용도 낮아

JW중외제약이 레오파마에 기술수출한 JW1601 임상 시험이 본격 개시된다.

JW중외제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혁신적인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JW1601’에 대한 임상 1상 시험계획(IN D)을 승인받았다고 7일 밝혔다.

‘JW1601’은 지난 8월 피부질환 치료 시장 글로벌 1위 기업인 덴마크 레오파마에 전임상 단계에서 총 4억200만 달러

(약 4500억원) 규모로 기술 수출한 신약 후보물질이다.

이 후보물질은 히스타민 H4 수용체에 선택적으로 작용해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하는 면역세포의 활성화와 이동을 차단하고, 가려움증을 일으키는 히스타민의 신호전달을 억제하는 이중 작용기전을 갖고 있다.

특히 항염증 효과 위주인 경쟁 개발제품과는 달리 아토피 피부염으로 인한 가려움증과 염증을 동시에 억제하는 새로운 기전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구제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의 복용 편의성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신약 후보물질로 평가된다. 또, H4 수용체에 높은 선택성을 가지고 있어서 부작용 발현율도 현격하게 낮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JW중외제약은 이번 임상 시험계획 승인에 따라 세브란스병원에서 총 88명의 건강한 한국인과 코카시안(백인) 성인을 대상으로 안전성, 내약성을 비롯해 약물의 효과, 생체 반응 등을 평가한다. JW중외제약은 2019년까지 임상 1상 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며, 레오파마는 2020년부터 글로벌 임상 2상 시험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세경 기자

# 이대목동병원, 인공방광센터 확장

이대목동병원 인공방광센터가 비뇨의학과가 아닌 독립된 공간에 새롭게 자리를 잡고 진료로 시작한다. 지난 2015년 11월 비뇨의학과 내 국내 유일의 인공방광센터로 개소한 이후 3년 만에 확장 개소했다.

이대목동병원은 7일 인공방광센터 확장 이전 개소식을 진행했다. 인공방광센터는 이번 확장 이전 개소를 통해 방광암 환자들에게 보다 전문화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대목동병원 인공방광센터는 국내 하나뿐인 인공방광수술 특화 센터로 국내에서 가장 많은 수술을 한다. 비뇨의학과·영상의학과·감염내과·병리과·외과 등 5개과 의료진의 협진으로 수술이 진행돼 치료 성과와 환자 만족도가 높다.

수많은 수술 경험과 노하우가 쌓이다

보니 수술 시간이 8시간에서 3~4시간으로 줄고 신경·혈관 손상을 최소화해 출혈도 적은 ‘무(無)수혈’ 수술을 실현한다. 70대 환자나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도 인공방광 수술을 받을 수 있다.

또 인공방광에 요관 카테터·콧줄 등 각종 관을 삽입하지 않고 수술 후 항생제를 쓰지 않는 것도 장점이다. 기존 인공방광 수술은 수술 시간이 긴데다 감염에 취약한 부분을 수술하다 보니 관례적으로 상당히 많은 양의 항생제를 사용해 인공방광 수술을 한 환자들이 나중에 신우신염 같은 합병증이 생겨도 항생제 내성이 생겨 어떠한 항생제도 듣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새로 고안한 수술법은 복막과 혈관 등을 최대한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항생제를 많이 쓸 필요가 없다.

/이세경 기자



문병원 이화의원장(왼쪽에서 세번째)과 한종인 이대목동병원장(왼쪽에서 다섯번째)을 비롯한 경영진과 이동현 인공방광센터장(왼쪽에서 네번째)이 7일 인공방광센터 확장 이전 개소식에서 테이프 커팅식을 하고 있다.

# 스마트폰 호출하면 자율차가 고객 위치로

## SKT 카셰어링용 자율주행차 시연 행사

스마트폰으로 카셰어링(차량공유) 차량을 호출하면 고객 위치로 차가 스스로 오는 기술이 개발됐다.

SK텔레콤은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서울대, 쏘카, SWM 등과 함께 경기도 시흥시 배곧생명공원 인근 도로 2.3km 구간에서 카셰어링용 자율주행차 시연 행사를 성공리에 마쳤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시연은 국토부가 주관한 '자율주행 기반 카셰어링 서비스 기술 개발' 실증 과제 성과를 선보이는 행사다.

행사에는 SK텔레콤, 시흥시, 쏘카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모집한 일반인 100명과 임병택 시흥시장 등이 참석했다. 시연에는 SK텔레콤이 서울대·연세대 등과 공동 개발한 자율주행차 총 5대가 쓰였다. 현대차 'G80', '아이오닉', 기아차 'K5', '레이', '니로'를 개조한



체험단이 자율주행으로 운행 중인 SK텔레콤-연세대 차량(레이) 안에서 목적지까지 경로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하고 있다. /SK텔레콤

차량이다.

체험단은 스마트폰 앱에서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하고, 자율주행차를 호출했다. 주변 자율주행차는 호출 즉시 체험단 위치를 파악

하고, 수 분 내 도착했다.

SK텔레콤은 향후 5G를 접목해 자율주행, 차량 호출, 자율 주차 기술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김나인 기자 sikni@metroseoul.co.kr

# 연동형비례대표 필요



## 기지수첩

정연우 (산업부)

에드워드 로이스는 저서 '가난이 조종되고 있다'에서 "부의 불평등을 조율하기 위해서는 합법적 국가의 권력을 소수가 아닌 국민 다수가 원하는 권력으로 재분배해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 유럽의 대다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포함한 각종 형태의 비례대표제를 선거를 치르고 있는 반면 미국의 선거방식은 소선거구를 채택하고 있다.

소선거구제는 '승자독식' 구조로 평등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현재 미국의 양당제를 기반으로 한 정치 구조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망각한 채 재분배 개혁을 실천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난 1987년에 도입된 대한민국의 소선거구제는 거대정당에 유리하고 사표를 많이 발생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민주당은 25.5%의 정당득표율로 48%의 의석을 얻은 반면, 국민의당은 26.7%의 정당득표율을 얻고도 12.6%의 의석율만을 차지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 300명을 지역구 의원 200명, 비례대표 100명으로 각각 나누는 권역별(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원내외 7개 정당도 31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식의 선거제도 개편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각 당의 전체 의석수가 정당지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득표율과 의석율은 비례하게 된다.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을 보장할 수 있으며 원외 정당도 의석 배분 가능성이 높아져 협치와 다당제의 근간을 이룰 수 있다.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표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권력은 평범한 시민 한 명의 정치력에서 나온다. 시민이 모여 만들어지는 공동체는 정치권력의 기반이 되기에 충분하다. 다수에게 권력이 분배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정치에 반영되는 데 초석이 될 것이다.

/ywj964@metroseoul.co.kr

# 현대모비스 '주니어 공학교실' 국내 넘어 해외서 주목

현대모비스의 대표적 사회공헌 활동인 '주니어 공학교실'이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미국 미시건주 디트로이트 소재 Durfee 공립 초등학교에서 '주니어 공학교실' 시범수업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주니어 공학교실은 현대모비스가 국내에서 2005년부터 이공계 인재 육성 차원에서 초등학교 고학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실습

형 과학수업이다.

이번 수업에서는 현대모비스 북미연구소 10여명의 연구원들이 강사로 나서 재능기부했다.

'주니어 공학교실'은 현대모비스가 국내에서 2005년부터 이공계 꿈나무 육성 차원에서 운영해 오고 있는 초등학교 4~6학년생 대상 실습형 과학수업이다. 국내에서 최근 5년간 2000여 명의 직원들이 재능기부 차원에서 강사로 나섰다.



미시건주 디트로이트시 Durfee 공립초등학교에서 현대모비스의 주니어 공학교실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현대모비스

며, 200여개 초등학교에서 3만여명의 학생들이 이 수업에 참여한 바 있다. /양성운 기자 ysw@

## 오늘의 운세 11월 8일 (음 10월 1일) http://www.saju4000.com

- 쥐** 48년생 손풍에 뒤편배 가듯이 손조로운 하루이다. 60년생 물건을 새것이 좋고 사람은 옛사람이 좋다. 72년생 남들보다 앞서 나가는 것이 오히려 불편하다. 84년생 멀리서 친구가 찾아오니 귀인이 될 것이다.
- 소** 49년생 김치국부터 마시다가는 낭패를 본다. 61년생 스스로 겸손하면 주변이 알고 도와주니 마음을 잘 다스려라. 73년생 기다리지 말고 먼저 손을 내밀어라. 85년생 병도 약도 다 내 탓임을 명심하라.
- 호랑이** 50년생 문서운이 있으니 뱀띠의 도움으로 획득. 62년생 물을 두려워하고 수영선수가 될 수 없음을 명심. 74년생 심신은 피곤하나 재물은 들어오는 날이다. 86년생 불행은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더 커진다.
- 토끼** 51년생 친척의 방문으로 근심거리가 생긴다. 63년생 사방에서 운이 들어오는 날이니 거칠 것이 없다. 75년생 되로 주고 말로 받는 날이니 말조심. 87년생 집 나간 말이 가족을 일러서 돌아오니 이득이 많은 날.
- 말** 52년생 가야 할 길은 많이 남았는데 힘이 든다. 64년생 뜻밖의 초대로 기분이 좋으나 손재수도 있다. 76년생 건강이 우선이니 운동을 게을리하지 마라. 88년생 동료와의 협업이 서로에게 도움을 준다.
- 뱀** 53년생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날 같아라. 65년생 행운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니 항상 준비하고 노력. 77년생 용서보다 더 완벽한 복수는 없다. 89년생 바람이 분다고 다 흔들리지는 않으니 의지가 중요.

- 말** 54년생 물 건너서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 66년생 어느 길로 가도 목적지에 도착할 만큼 운이 좋은 날. 78년생 한밤중에 비단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격. 90년생 의외의 귀인이 바로 옆에서 도와준다.
- 양** 55년생 자신의 약점은 가족에게도 말하지 마라. 67년생 두드러져 열릴 문이 먼 힘껏 두드려라. 79년생 위대한 것을 위해 좋은 것을 포기하는 걸 두려워 마라. 91년생 죽은 나무에 물을 주는 것은 시간 낭비.
- 원숭이** 56년생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 즐거운 하루. 68년생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것은 부모님 사랑. 80년생 역마의 운이 있으니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 92년생 도장 찍을 일이 있다면 오늘이 그날이다.
- 닭** 57년생 마음은 별이라도 딸 것 같으나 자중할 때이다. 69년생 숨은 실력을 자랑하고 남들도 알아주는 기회가 온다. 81년생 길 떠나게 되면 상비약을 꼭 챙겨라. 93년생 당장 최선의 해결책은 양보와 타협.
- 개** 58년생 믿은 만큼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 70년생 자존감이 지나치면 주변을 힘들게 하니 마음을 겸손하게. 82년생 행복은 주변에 있으니 이웃을 잘 보살피라. 94년생 공들인 탐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 돼지** 59년생 우물을 발견했으니 두레박은 만들어서 쓰라. 71년생 동트기 직전 가장 어두운 법이니 곧 태양이 뜬다. 83년생 씨를 뿌리고 수확을 기대하라. 95년생 행복한 사람은 늘 감사할 줄 아는 사람.

#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3	5					
	1		8				5	
		4	2		9	1		
4								7
	2						1	
7		6				5		3
	7		1		4		6	
	8			2			3	
		5	7		8	2		

		2	4		5			1
1					9		7	
5	4			3				8
	9				7			6
2		7		5		3		4
	5		6				7	
	1				8			2 3
		4		2				7
6			5		4			

스도쿠 정답

1	6	2	8	5	4	9	7	3
4	9	5	1	3	6	8	2	7
5	8	7	3	9	2	1	4	6
6	1	4	9	8	7	3	5	2
8	3	9	2	6	1	5	4	7
9	5	1	6	7	4	2	8	3
2	7	6	5	1	8	3	9	4
8	6	1	7	4	9	5	2	3
3	9	5	1	8	2	7	6	4
9	8	2	1	4	6	7	5	3
5	7	4	8	6	2	9	1	3
1	4	6	5	9	7	3	8	2

문제 제공 = 보너스

# 김상회의 四季

이제는 하고 싶은 일을

"나이를 이렇게 먹었는데 내가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계면 짙은 표정의 남자가 말을 꺼냈다. 50대 중반의 남자는 정년까지는 아직 기간이 남아있지만 명예퇴직으로 은행을 나왔다. 퇴직하고 처음 몇 달은 잘 지냈다. 평생 직장생활만 하다 자유로운 몸이 되니 그렇게 좋더라. 무작정 노는 게 싫증나면서 제2의 인생을 찾아보려 고민 중인데 뜻밖의 문제가 가로막혔다. 그건 무얼 하면 좋을지 무얼 하고 싶은지를 모르겠다는 것이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이게 나에게 맞는 일인지 고민하면서 평생 보낸 셈이죠." 남자는 은행 중에 금(金)이 많은 사주를 갖고 있다. 성격은 고집이 세고 가끔은 날카로운 성향을 보이기도 한다. 일을 할 때는 칼 같이 업무처리를 하며 좋은 성과를 올린다. 남보다 우월한 문장성도 갖고 있다. 머리가 좋고 지식을 배우는데 흥미가 많은 사람이다. 학교에서 학문을 연구하는 쪽으로 진출했어도 좋을 운세였다. 은행 생활은 그에게 고객을 대하려면 자기의 고집을 세울 수도 없었고 매일 돈을 맞추는 것도 탐탁치 않았다. 그렇지만 생계의 짐도가 가벼워진 그는 "이제는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난 사주가 어떤지 무얼 하면 잘 어울리는지 알고 싶어요." 일리 있는 말이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가족부양이라는 짐에 평생을 시달린다. 힘들기는 하지만 자기가 할 일이나 어쩔 수 없기도 하다. 그러나 퇴직을 하고 짐이 가벼워진 다음에는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해보는 기쁨을 누려야 한다. 문장성이 특출한 남자의 사주로 보아서 업계 후배들을 위한 강연도 잘 어울린다. 평생 축적한 전문성도 살릴 수 있고 새로운 것에 대한 지적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다. 남 앞에 나서서 돋보이는 걸 좋아하니 강연은 여러 가지를 충족시킬 수 있다. 평소 즐겼던 책읽기에 많은 시간을 들이고 글쓰기로 새 삶을 펼치는 것도 좋다. 삶의 무게에서 살짝 벗어난 퇴직 한 사람들에게 제2의 인생은 최고의 화두가 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창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김교준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075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179호

# HUG 태클에 분양 미뤄지고... 결국 '로또 청약' 부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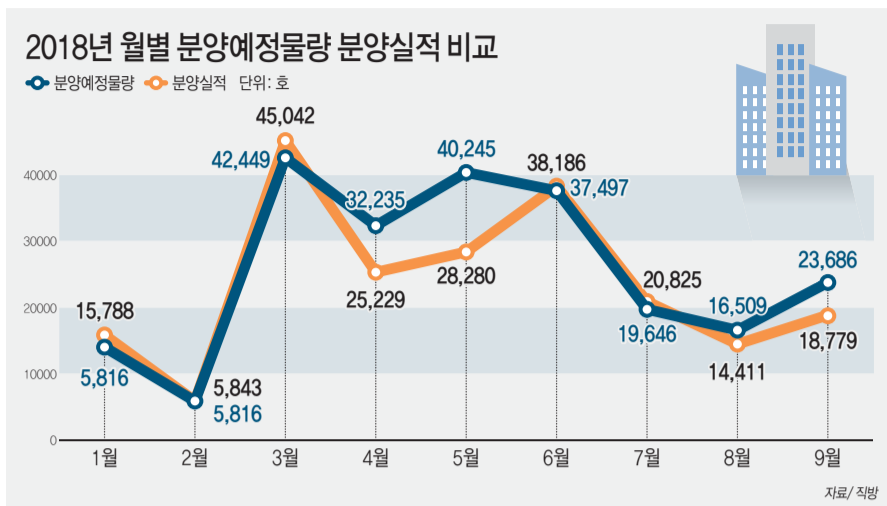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위례·분당 등 줄줄이 연가 분양가 110% 넘는 아파트 통제 서울 64%·경기 83% 실적 그쳐 특정아파트만 몰려 경쟁 더 치열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로 주택시장이 흑한기에 진입했다. 여기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통제가 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업체는 HUG와의 분양가 싸움으로 분양 일정이 대거 미뤄지면서 수급 불균형, '로또 청약'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해석한다.

### ◆분양가 협상 어려워 '연기 또 연기'

7월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주요 지역을 비롯해 위례, 성남, 과천 등지에서 아파트 분양이 줄줄이 연기되고 있다. 분양이 미뤄지는 대표적인 이유는 분양가 때문이다. 건설사들은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아파트 분양을 진행하려면 분양 계약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HUG의 분양보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그러나 HUG는 주택매매가 안정을 위해 분양가가 높은 아파트(주변 시세의 110% 초과 등)에 대해선 보증서를 발급해주지 않고 있다. 사실상



분양가 통제를 하는 셈이다.

분양가를 두고 조합원·시행사와 HUG의 줄다리기가 길어지자 예정했던 분양 일정이 기약 없이 밀리는 분위기다.

대표적인 곳이 '청량리역롯데캐슬 SKY-L65(전농동 청량리4구역 재개발 단지)'다. 청량리 일대는 올 여름 '청마용성(청량리·마포·용산·성동)'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집값 상승률이 두드러져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그러나 청량리역롯데캐슬 SKY-L65에 대한 분양가 협상이 결렬되며 분양이 미뤄지고 있다. 조합은 3.3㎡당 2600만원 선을 원하지만, HUG는 2300만원을 요구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동대문구 'e편한세상 용두5구역', 은평구 응암동 '현대힐스테이트 응암1구역', 은평구 수색동 'DMC SK뷰', 동작구 '사당3구역 푸르지오', 동대문 용두5구역 재개발 단지 'e편한세상 청계센트럴포레 등'도 분양이 연기됐다. 'e편한세상 청계센트럴포레'의 경우 조합은 3.3㎡당 2400만원선을 원하는 반면, HUG는 그보다 100만~200만원 더 낮추는 게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이런 영향으로 분양 시장이 때 이른 흑한기를 맞았다. 직방에 따르면 올해 1~9월 분양 실적은 21만2383가구로 지난해

**꼼수 분양가 선정 금지시켜주세요**  
[정원시작: 2018-11-04] [정원마감: 2018-12-04] [정원인원: 96]

분양가 폭등! 지역별 사상 최고가 분양가 확정! 부동산 거품은 분양을 허용하고 분양가 급등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폭

**꼼수 분양가 선정 금지시켜주세요**  
[정원시작: 2018-11-04] [정원마감: 2018-12-04] [정원인원: 5]

HUG, 국토부 및 일부 지자체는 적폐투기세력과 야합 꼼수 분

**정부는 투기를 조장하지 말아주세요.**  
[정원시작: 2018-10-12] [정원마감: 2018-11-11] [정원인원: 27]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된 HUG의 분양보증제한에 대한 청원글 캡처.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문제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래미안 리더스원' 사례가 그렇다. 서초 재건축 아파트인 '래미안 리더스원'은 HUG와의 분양가 싸움에 지난 4월부터 수차례 분양 일정을 연기한 바 있다.

결국 지난달 16일 래미안 리더스원의 일반 분양가는 3.3㎡당 4489만원으로 책정됐다. 인근 아파트 시세와 비교하면 3.3㎡당 1000만원 가량 저렴한 수준이다. 전용면적 84㎡를 기준으로 인근 아파트보다 6억~8억원 가량 싸다. 당첨만 되면 일반아파트 1채 수준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런 기대감에 지난 6일 진행된 래미안 리더스원 1순위 청약엔 1만명의 청약통장이 몰렸다. 59타입의 경우 청약경쟁률이 422.25대 1로 최고를 기록했다. 중도금 대출이 막혀 최소 10억원 이상의 현금 있어야만 하는 점을 고려하면, 현금 부자들의 로또를 향한 열기를 증명한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출 규제를 높여도 돈 있는 사람은 사서 결국엔 시세차익을 본다"며 "시장의 자율에 맡기지 않고 HUG에서 가격을 통제할 결과 부자들만 더 부자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 한국고용정보원,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한국고용정보원은 국가고용서비스선진화를 이끌어갈 2018년 하반기 인재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모집인원은 연구·정보화·경영 분야에서 5급 신입직원 19명 내외를 선발하고 연구 부문은 청년 고용, 노동시장분석, 일자리사업평가 관련 연구·실무능력이 우수한 지원자를 채용할 계획이다. 또 정보화분야는 빅데이터 구축, 웹 사이트개발, 정보보안, 시스템운영 관련 업무능력 보유자를 모집하며, 경영 분야에서는 실무능력이 우수한 응시자를 뽑는다.

채용전형은 서류심사-필기시험-대면 면접 3단계 절차를 거친다. 입사 희망자는 정보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채용공고를 확인한 뒤, 오는 22일까지 취업정보사이트 워크넷(www.work.go.kr)에서 응시원서를 접수해야 한다. 필기 및 면접 전형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해 진행되며 채용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모든 전형이 블라인드로 이뤄진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보원 인사교육팀 (043-870-8724)으로 문의하면 된다. /세종=최신용 기자



## “한국산 쌀스낵, 中 영유아 입맛 잡는다”

aT '미래클 K-Food 유기인증' 2000만원 상당 725박스 수출

미래클 K-Food 유기인증 쌀스낵이 중국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5일 전남 나주시에 소재한 ㈜청담에서 '미래클 K-Food 쌀스낵 대 중국 수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출 기념식을 개최한 쌀스낵 제품은 한국산 쌀가공식품 최초로 중국 유기인증을 획득한 '레인보우 불' 제품 5종을 비롯해 집과 소프트바 등 총 14종의 제품이다. 2000만원 상당의 725박스가 수출되며 우리 쌀의 새로운 시장개척과 농가소득 제고를 위한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다. aT에서는 작년에 수출농식품 현지화 지원사업을 통해 전남 곡성산 유기농 쌀과 레인보우 불 영유아 쌀스낵 5개 제품에 대해 쌀제품으로는 최초로 중국 유기인증을 획득했다. 이후 미래클 K-Food 프로젝트 지원대상 품목으로 선정해 중국 상하이 소재 영유아식품 전문 바이어인 장화국제무역유



지난 5일 수출 기념식에서 수출품 박스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는 장화국제무역 김재웅 대표(왼쪽부터), aT 백진석 부사장, 손금주 의원, (주)청담은 김영식 대표, 장화국제무역 주정 총리. /aT

한공사와 매칭해 중국 수출이 성사됐다. 미래클 K-Food 프로젝트는 미래에 클 가능성이 높은 한국 고유의 차별적 가치를 지닌 유망상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영세성, 경험부족 등으로 수출과 이어지지 않는 신규 품목을 aT가 발굴하여 한국 고유의 수출유망상품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수출되는 쌀스낵은 중국의 대표적인 소비시장인 강소성, 절강성 내 121개 영유아용품 전문점에 14개 품목이

한꺼번에 입점돼 각 매장별로 신규입점 이벤트를 진행한다. 백진석 aT 부사장은 "국내산 유기농 쌀을 원료로 만든 영유아 쌀스낵처럼 한국 고유의 차별적 가치를 지닌 수출유망 품목을 발굴하고 해외시장에서 성공 품목으로 육성하는 것이 aT의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미래에 클 가능성이 높은 유망 품목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aT의 역량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 장애인고용공단, 고용패널 학술대회 열려

장애인 노동시장 정책 등 발표·토론 출된 바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장애인 노동시장의 현황과 향후 과제'라는 기획주제 발표와 함께 노동시장 정책, 고용안정, 고용서비스, 고용과 삶 등 4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12편의 연구논문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또한 장애인고용분야의 창의적이고 유용한 연구논문을 발굴, 장려하기 위해 실시한 대학원생 논문경진대회를 통해 선정된 3편의 우수논문 시상과 함께 최우수 논문에 대한 발표도 진행된다. 학술대회는 장애인고용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학술대회에 관한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고용개발원 홈페이지(http://edi.kead.or.kr)를 통해 알 수 있다. /세종=최신용 기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11월 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8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로 10회를 맞는 학술대회는 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등의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고, 장애인 고용의 정책적·학문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2009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그동안 치러진 대회를 통해 장애인 고용정책, 고용증진방안 등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다룬 연구논문이 160여 편 이상 발표됐으며 토론과 의견수렴을 거쳐 실질적인 정책대안이 다수 도

## 산업인력공단, 獨 취업정보 설명회 개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7일부터 8일까지 서울해외취업센터에서 독일 해외전문인력 중재센터(ZAV)와 공동으로 독일 취업정보 설명회 'German Career Day 2018'을 개최한다. 독일 해외전문인력 중재센터(Zentrale Auslands- und Fachvermittlung)는 독일 연방고용청 소속기관으로 자국 기업의 외국인 채용 서비스와 독일취업을

희망하는 해외 전문인력에게 취업정보와 알선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번 설명회에는 독일의 취업시장 환경과 취업전략, 직업훈련제도와 대학교육, 취업사례 발표 등 독일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강연에는 한독상공회의소 안트에 레제시(Antje Resech) 부사장, 해외전문인력 중재센터 하이크 보끄만(Heike B orgmann) 컨설턴트, 독일고등교육진흥원 이호경 박사 등 독일 전문가가 참여한다. 또한 설명회와 함께 독일 IT기업인 블루네트웍스(Blue Networks)와 우가(Wooga)가 참여해 사전 구직등록 후 서류전형에 합격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채용면접을 진행한다. 사전 구직등록자들은 설명회가 끝나도 해외전문인력 중재센터를 통해 1:1 컨설팅 서비스와 취업알선 등 지속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 /세종=최신용 기자

www.pdna.co.kr

# 눈부신 어린 피부 “비밀은 DNA”



- 연어케어의 원료성분 Sodium DNA 함유
- 아데노신 함유

## 바다 송어의 DNA\*에너지 - 피디엔에이 크림

### 피부의 새로운 에너지, 바다 송어 추출 \*sodium DNA 함유

메마른 피부는 안티에이징 적신호. 연어과 어류인 바다 송어에서 추출한 sodium DNA 1000ppm, 아데노신 등 7가지 피부보호 성분이 유수분밸런스에 도움을 주고 피부 자생력을 강화하여,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로 가꿔줍니다.

\* sodium DNA, 아데노신, 병풀/어성초/치아씨/백년초열매 추출물, 올리브 오일 등

### 겨울에도 눈부신 봄 피부. 경험해보세요, 피디엔에이 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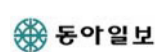
찬바람이 불어도 부드럽고 생기있게 빛나는 매끄러운 피부. 물광피부와 동안 관리 효과를 동시에 경험해 보세요. 피디엔에이 크림은 풍부한 영양감. 짙 찬 수분감으로 주름개선을 도와 피부에 새로운 시간을 선사합니다.

### [ 주요 언론에 소개된 피디엔에이 크림 ]



- ▶ KOTRA BUYERS GUIDE Pioneer 소개 (2018.8) "Skin regenerating cosmetics"

국내 주요 일간지에 동안크림으로 보도, 소개된 피디엔에이 크림.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pdna.co.kr](http://www.pdna.co.kr)에서 확인하세요.



**P+DNA** MFDS 식약처 기능성 보고 완료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구입문의  
고객상담센터

**070-4870-0708**



2017 우수 보육프로그램 사례발표회.

### 광주 북구, 우수 보육프로그램 성과 ‘공유’

광주시 북구가 부모가 안심할 수 있고 아이가 행복해지는 어린이집 환경 조성을 위해 우수 보육프로그램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광주 북구는 오는 9일 오후 1시 30분부터 시화문화마을 문화관에서 관내 어린이집 교직원 및 학부모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진 보육문화 확산을 위한 '2018 우수 보육프로그램 사례발표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발표회는 '부모와 아이, 보육교사가 더불어 행복한 어린이집'을 조성하기 위해 우수 보육프로그램 개발에 연

구·노력하는 교직원들을 격려하고, 아울러 우수사례에 대한 성과를 공유해 보육의 질을 한층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북구는 장구놀이·윷놀이 등 북구 어린이집연합회 분과별 회장 추천을 통해 선정한 5개의 우수 보육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어린이집 원장 및 교직원 등 우수 보육교직원 15명에 대해 표창을 수여한다.

문인 북구청장은 "부모와 아이, 보육교사가 더불어 행복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보육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봉태영 기자

# ‘예산부족’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광주시, 국비 추가지원 ‘파란불’

항공료·객실단가 등 과소계상 예산 평창올림픽의 3.7% 불과 1697억→2235억원 증액 요구 이낙연 “국회 합의면 지원가능”

광주시가 예산 부족으로 애를 태우던 내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운영에 파란 불이 켜졌다.

최근 광주시와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정책협의회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밝힌 데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국회 답변 과정에서 국비 추가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애초 국비 482억원을 포함해 1697억원이던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총사업비를 국가지원 295억원(국비 169억원·기금 126억원)등 538억원 늘어난 2235억원으로 증액해 달라고요

청했다

광주시는 지난 정부와 총사업비 확정 과정에서 항공료와 호텔 객실 단가 등 운영비가 지나치게 과소계상됐고, 세계수영연맹 요구와 여건 변동에 따라 누락·추가 항목이 발생해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5대 세계스포츠 중 하나인데도 예산 규모가 평창올림픽의 3.7%밖에 안 되고, 가장 적게 지원한 2011년 대구 육상선수권대회의 41.8%밖에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시설비 부분에서도 기본계획 단계에서 원가 방식으로 확정됐으나 조달청의 설계 적정성 검토 결과 증가했다.

증가분은 수경기장 변경과 관람석 증가로 103억원, 주 경기장 진입도로 사면보강 39억원 등이다.

이 같은 예산 추가 지원 요청에 지난달 24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예산정책협

의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지난 6일 국회 예결특위 종합정책 질의에 나선 송갑석 의원은 이낙연 총리에게 예산상 어려움을 설명하고 "평창에서 시작된 스포츠를 통한 남북교류와 평화의 메시지가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통해 성공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범정부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이에 이 총리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내년 국내 유일 국제대회로서 국비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국회에서 합의해준다면 지원 가능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대회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여당의 지원 약속에 이어 총리도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피력해 사업 추진에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봉태영 기자 bcy2020@metroseoul.co.kr

### 인천시, 3개월간 취약계층 겨울나기 지원

인천시는 다가오는 동절기를 대비해 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 지원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겨울철 한파 등 열악한 환경에 무방비 노출시 동사 및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길거리 노숙인 159명, 노숙인 시설 7개소 335명, 쪽방생활자 309세대 424명 등 취약계층 총 918명에 대한 보호대책이 절실한 형편이다.

시는 2018년 12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을 중점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경찰, 소방, 군구, 관련시설을 연

계한 현장대응반을 운영해 거리노숙인 안전보호를 실시하고 있다.

밀집지역 현장활동을 통한 상담보호와 시설입소 및 응급잠자리를 제공하고 방한복 등 응급구호 물품을 배부하는 한편, 쪽방 주거지 순회방문으로 보일러 수리교체와 난방비, 겨울용품(4,800만원 상당) 및 김장김치, 연탄 2000장을 지원한다.

또한, 쪽방상담소 계양본소, 동구본소 등 2곳의 한파대피소도 지정, 운영하기로 했다.

/인천=최영주 기자 choiyj@

### 농업인들 모여 ‘식량작물’ 개선방안 모색

전남 장성, 식량작물 종합평가회 타작물 성공적 재배사례 등 공유

장성군 농업인들이 식량작물 생산력 향상을 위한 평가회를 가졌다.

장성군은 지난 6일 농업인회관에서 지역 농업인 100여명이 참여하는 '2018년 식량작물 종합평가회'를 열고, 올해 식량작물 작황 분석과 재배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고 7일 밝혔다.

식량작물 시범사업에 참여한 농가와 쌀 전업농, 2세 농업인 등이 참여한 이번 평가회는 2018년에 시범사업으로 실시된 식량작물 사업을 평가하고, 타작물을 성공적으로 재배한 타 시군 사례 등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올해 벼농사는 폭염, 가뭄, 태풍으로 생육에 지장을 받았으나, 유숙기와 등숙기에 충분한 일조량을 얻고 전년 대비 병해충 발생이 적어 작황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2018 식량작물 종합평가회.

장성군은 올해 괄목할만한 성과로 '명품 수출쌀 육성프로젝트'를 꼽았다. 2015년에 26톤을 수출한 것을 시작으로 4년차에 접어든 올해 '365생' 쌀을 5차례에 걸쳐 러시아와 미국 등 5개국에 108톤을 수출하고, 가공즉석밥 '농협소반'도 해외시장에 32톤 가량 판매했다.

장성군은 관내 쌀 판매확대를 위해 해외시장을 개척해 수출시장 기반 조성에 힘써왔다.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인 '수출 쌀 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에 선정돼 해

외 소비자 입맛과 기호에 맞는 전락 품종을 생산하고, 재배 기술 보급 등을 실시했다.

군 관계자는 "식량작물 생산 기반을 다양화 해 농업인들이 농업위기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쌀의 경우 꾸준한 품질관리로 미질을 높이고, 쌀 이외의 대체작물 생산 기반도 확대해 농가의 경쟁력을 높여도 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장성=봉태영 기자

### 완도어업정보통신국 개국식 열어

완도군-수협중앙회

완도군과 수협중앙회는 지난 6일 전국에서 18번째로 문을 연 완도어업정보통신국의 개국식을 개최했다.

완도어업정보통신국은 어선법 개정으로 VHF-DSC(초단파대 무선전화)의 의무 설치 어선이 총 톤수 5톤에서 2톤 이상 어선으로 확대됨에 따라 통신 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신설됐다.

/전남 완도=이제민 기자 wando1106@

완도군 군외면에 총 사업비 31억 6500만 원, 대지 1678.7㎡(507평) 지상 2층 연면적 843.45㎡(259평) 규모로 어업인 교육장, 안전체험관, 민원 봉사실, 통신실 등을 갖추었다.

업무 구역은 완도군, 강진군, 장흥군, 해남군으로 △출어선 안전 지도 △한일, 한중 EEZ 조업선 관리 △해상 통합방위 통신 △방재업무 △안전조업에 관한 어업인 교육 등을 수행한다.

### 아시아 11국 문학인 광주에 모인다

아시아 다양성 존중과 새로운 문학담론을 형성하고 각국 문화 작가들의 네트워크 구축과 연대를 모색하는 2018 제2회 아시아문학페스티벌이 7일 오전 10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9일까지 펼쳐진다.

이번 행사는 광주광역시와 아시아문학페스티벌조직위원회,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공동주최하고 아시아문화원과 광주문화재단이 주관하며 '아시아에서 평화를 노래하자'라는 주제로 11개국 23명(해외 10개국 11명, 국내 12명)과 지역작가 30여 명이 참여한다.

7일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국내외 초청작가, 지역작가,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개막식에서 백낙청 조직위원

장(문학평론가)은 "5·18의 평화정신이 아시아문학페스티벌을 통해 아시아 문학인들의 소통과 연대로 더 구체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영상으로 전한 축사를 통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온 몸으로 저항했던 이곳 광주의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아시아 각국의 문학인들이 쌓아갈 뜨거운 연대와 이야기는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다"며 "이번 행사가 인류평화에 기여하는 문학인들의 축제, 세계 시민들이 함께하는 축제로 발전해 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도 축사를 통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창조 문화가 꽃 피고 열매를 맺는 곳으로, 광주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길

내일까지 '아시아문학페스티벌' 국내·외, 지역작가 30여명 참여

다"며 "아시아문학페스티벌이 문학계의 새로운 담론을 형성하고, 다양한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며, 경계없이 소통하는 교류의 장으로 자리 매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개막 축하공연으로는 제1회 아시아문학상 수상작가 담딘수렌 우리앙카이의 시 '증언'을 모티브로 한 창작무용(안애순 아시아무용단 예술감독) '시간의 흔적'이 무대에 올랐다.

한편, 6일 오후 2시 백낙청 조직위원장을 비롯한 조직위원회 위원, 몽골 담딘수렌 우리앙카이, 베트남 바오 님, 팔레스타인 자카리아 무함마드 등 국내외 초청작가들은 5·18국립묘지를 참배하고 나종영 시인이 '5월, 광주여 영원한 것발이여'라는 추모시를 낭독했다.

/광주=봉태영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04 | 해질 / 17:27

11월 8일 (木) 음력 : 10월 1일

수도권 날씨 11~15°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8/14, 동두천 9/15, 가평 7/12, 파주 9/14, 서울 11/15, 양평 10/15, 인천 12/16, 수원 11/15, 용인 11/15, 평택 11/17, 백령도 10/12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금융]
우리은행
금융지주사 재전환
04



Life '8K TV' 체험행사
[산업]
삼성전자
05
Image of a Samsung QLED 8K TV display.

# 2022년까지 11兆 투입... 지진·미세먼지·폭염 대응 강화

## 서울시 '안전도시 서울플랜' 발표 새로운 위협요인에 선제적 대응

“2022년까지 공공시설물 내진율 100%, 초미세먼지(PM-2.5) 농도 18μg/m³.”

서울시가 서울 안전정책의 미래비전, 기본방향, 핵심대책을 담은 '안전도시 서울플랜'을 7일 발표했다.

안전도시 서울플랜은 5개년(2018~2022년) 기본계획으로 안전분야 중장기 마스터플랜이다. 사회·인문학적·노동의 관점·재난회복력 관점을 도입한 계획에는 11조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016년 임현진 서울대 교수를 포함, 인문사회, 노동, 시설물 등 분야별 전문가, 시민대표 19명이 참여하는 기획위원회를 구성해 30여 차례 안전정책 혁신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시설물 관리와 인프라 보수·보강 위주였던 기존의 도시안전·관리 개념을



박원순 서울 시장. /손진영 기자

넘어 지진, 폭염, 미세먼지와 같은 새로운 안전위협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빅데이터, 사물인터넷과 같은 4차 산업기술도 안전분야에 새롭게 도입한다.

시는 2022년까지 4대 분야 총 70개 과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된 7일 오후 서울 도심 일대에 미세먼지가 가득하다. /연합뉴스

제를 추진한다. 4대 분야는 ▲미래 안전 위협에 선제적 대비 ▲안전약자 보호 ▲4차 산업기술 활용 ▲국제적 협력이다.

시는 노후 인프라, 지진, 풍수해, 미세먼지, 폭염 등을 중점과제로 선정해 대책을 수립했다. 시설 노후화에 대비해 2020년까지 선제적으로 보수·보강, 성능개선

체계를 만든다. 또 도시철도, 도로 등 공공시설물 내진율 100%를 달성한다.

초미세먼지는 2022년까지 20μg/m³에서 18μg/m³로 감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차 보급 확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등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정책을 추진한다. 안전 불평등도 해소한다. 노동자, 저소

득층, 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정책을 개발·강화한다. 노동자 권의 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한다. 중앙정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안전 취약영역을 발굴, 시차원의 지원을 통해 노동안전 문화를 정착시켜 나간다.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드론 등 4차 산업 기술을 안전 분야에 적극 활용해 재난 대응력을 높인다. 서울형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과학 R&D 허브인 '서울기술연구원'을 중심으로 'IoT 지능형 도시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메르스, 미세먼지 등 국경을 초월한 재난에 대비해 도시 간, 국가 간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해 공동 대응한다.

박원순 시장은 "안전도시 서울플랜은 서울시 안전정책의 미래비전을 담고 있는 중장기 종합계획"이라며 "그동안 서울시가 준비해 온 다양한 정책을 집대성했다. 이러한 성과를 발판삼아 향후 서울시는 재난에 더욱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고척스카이돔 개장 3주년... 관중 332만 돌파

### 3년간 436회 스포츠·문화행사 열려 시설개선 등 쾌적한 관람 위해 힘써

국내 최초의 돔 야구장인 고척 스카이돔이 개장 3년 만에 누적관객 3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고척 스카이돔에서 지난 3년간 436회의 스포츠·문화행사가 열렸고, 누적관객 332만명을 넘어섰다고 7일 밝혔다.

고척 스카이돔은 넥센 히어로즈 프로야구단의 홈구장이다. 3년간 프로야구 경기 279회가 개최됐다. 홈구단인 넥센히어로즈가 올해 플레이오프에 진출해 7만명이 넘는 홈 관중이 운집하기도 했다. 우천이나 폭염에 영향을 받지 않고 경기를 즐길 수 있어 선수와 관중의 호응을 받았다.

콘서트 등 문화행사 때에는 2만5000명까지 수용 가능한 대규모 공연장으로 변신했다. 스카이돔에서는 총 68회의 문화행사가 열렸다. 케이티 페리, 샘스미스 등 세계적



고척 스카이돔. /서울시

인 아티스트가 내한공연했다. 또 방탄소년단의 팬미팅과 콘서트, 워너원, 엑소 등 K-POP 스타들의 콘서트는 전석 매진을 기록하는 등 공연문화 1번지로 자리 잡았다.

서울시설공단은 개장 이후 관람석 연결좌석 개선, 쌍둥이 전광판 설치, 경기장내 안전시설 설치, 관람객 시야확보를 위한 경기장내 시설개선 등 시민들의 쾌적

한 관람을 위해 힘썼다.

고척 스카이돔은 구로구 경인로 430에 지하 2층~지상 4층, 연면적 8만3476㎡ 규모로 완전돔 형태로 지어졌다. 야구장 규모는 국제공인 규격으로 건립됐다. 관중석은 1~4층 1만6813석이며, 콘서트 등 문화행사 때는 2만5000명까지 수용 가능하다. /김현정 기자

## 경기심야버스 72개 노선으로 대폭확대

경기도민의 야간시간대에 발이 되어줄 '경기심야버스'의 노선이 올 11월부터 대폭 확대 운영된다.

경기도는 '2018년도 경기심야버스 노선 확대계획'에 따라, 의정부→노원역(72-1), 안양→사당역(9-3) 등 14개 노선을 추가해 11월부터 운행에 들어간다고 밝히고 '경기심야버스'는 경기도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도민들에게 심야시간대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수단을 제공할 목적으로, 기점 기준 밤 11시부터 다음날 아침 첫차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이번 확대 조치는 민선 7기 교통정책의 중점 추진 방향에 맞춰 심야시간대 대중교통을 자가용 보다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도는 올해 9월부터 시군과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 막차 운송수익률, 심야운행 횟수 계획, 이용객수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총 6개 시군 8개 업체 14개의 추가 운행노선을 확

정하게 됐다.

세부적으로 의정부→노원역(72-1, 12-3), 안양→사당역(9-3, 11-3, 11-5), 의정부→흥죽산단(8), 용인→강남역(5001-1), 의정부→별내신도시(1), 포천→청량리(3200), 안산→여의도(5609), 부천→목동(98), 의정부→수유역(10-1), 의정부→도봉역(10-2) 등이 해당된다.

이와 동시에 포천 대진대학교에서 서울 양재역을 오고가는 3100번의 심야버스 노선을 기존 2회 운영에서 3회로 증편 운행하고 이에 따라 강남역 15개, 잠실·강변역 12개, 서울역 9개, 청량리 6개, 여의도 4개, 사당역 8개, 종로·광화문 1개, 영등포 1개, 수유역 3개, 기타 13개 등 72개의 심야버스 운행노선을 운행하게 됐다.

이들 노선에는 기점기준 23시 이후 심야운행에 따른 운행결손금의 50%를 도비로 지원하며, 특히 새벽 3시 이후에도 운행하는 노선의 경우 첫차 운행 전까지의 80%를 지원하게 된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 이재명 경기도지사, 전통시장 현장행보 나서

### 골목상권 살리기에 적극 나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물가비상, 가계소득 감소, 대기업 시장잠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다시 한 번 전통시장 현장행보에 나선다.

이재명 지사는 오는 13일 오후 2시 파주 금촌 전통시장을 찾아 지역경제의 주춧돌인 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실제 물가 실태와 서민경제 상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어 인근 금촌농협으로 이동해 최중환 파주시장, 이충

환 경기도 상인연합회장, 경기 북부권역 시군 상인회장 등 40여명의 상인 및 관계자들과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건의 및 애로사항을 듣고 토론하는 자리를 만든다.

이 지사는 이 자리를 통해 지역화폐 확대 발행,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 등 민선 7기 경기도의 전통시장·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설명하고 상인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를 당부할 방침으로 이번 현장방문은 실제 상인들의 고충과 목소리를 담은 '현장 밀착형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 수립을 위한 현장행정의 연속이다. /경기=김승열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9월 17일 수원 영동시장과 못골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격려하고 민생을 살피고 있다. /경기도

앞서 이 지사는 지난 9월 17일 수원 영동시장과 못골종합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골목상권 살리기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경기=김승열 기자

### 경기도-경기콘텐츠진흥원

## 'Art & VR'... 예술에 첨단 기술을 더하다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문화예술분야와 첨단 기술인 VR/AR을 융합한 새로운 콘텐츠 개발에 나선다. 도는 지난 6일 도내 VR/AR 기업과 국내 아티스트로 구성된 10개 팀과 협약을 맺고 3개월 동안 제작지원, 멘토링 등 개발과정을 지원해주는 'Art & VR'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VR/AR 개발자와 문화예술인이 한 팀을 이뤄 참여하며 총 10개 팀에 2억 5천만 원(팀당 약2천~3천만 원)의 개발비가 지원된다. 관련 분야 전문가 멘토링과 워크숍 등 교육프로그램부터 최종 프로젝트 결과물 전시까지 종합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문화예술분야 각 창작집단과 VRAR협약식. /경기도

적 지원을 받게 된다.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과 VR/AR 기술의 융합으로 미래 콘텐츠 산업의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김승열 기자

# SAMSUNG

## 공 기 의 완 성 이 자 공 간 의 완 성

격이 달라지는 건 공기만이 아니다  
전에 없던 큐브 디자인으로  
어느 공간에서도 품격있게

초순도 공기청정기  
**삼성 큐브**

NEW 메탈브라운 신규 출시



### 99.999% 초순도 청정

독보적인 하이브리드 필터로 만드는 완벽에 가까운 청정력  
- 미세먼지 99.999% 제거는 하이브리드 집진필터의 0.3μm 사이드 미세먼지 집진효율을 의미하며, 필터에 흡입된 공기에 한함  
- 필터를 한번 통과하는 공기에 대해 필터 통과 전후 미세먼지의 개수를 비교하여 제거 효율을 계산함 (시험 입자: 0.3μm 직경 입자, 풍속: 1.0m/s)  
- 국제인증기관 Intertek 검증을 받은 자사 실험 결과이며, 실시간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무풍 청정

바람과 소음 걱정 없이 조용하게 즐기는 초순도 청정  
- 미국냉공조학회 (ASHRAE) 정의 기준, Cold Draft가 없는 0.15m/s 이하의 바람을 무풍 (Still Air) 으로 정의함



### 큐브 디자인

넓은 공간에서는 두 개의 큐브를 결합하여 하나로 강력하게  
좁은 공간에서는 두 개로 분리하여 효율적으로 즐기는 큐브 디자인  
- 분리와 합체는 해당 모델에 한함